

3-28-2008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Seung Yong Um 엄승용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엄승용,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8.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is Dissertation entitled

THE BIBL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written by

SEUNG YONG U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Yea Sun Eum Kim

Seyoon Kim

March 28, 2008

**THE BIBLICAL FOUNDATION OF FAMILY
MINISTRY**

DISSERTATION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EUNG YOUN UM

MARCH 2008

가정사역의 성경적 기초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엄예선 교수

엄 승 용

2008년 3월

Abstract

The Bibl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Seung Yong Um

Doctor of Ministry

200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astonishing growth and maturity of the Korean church in only 120 years has unfortunately come with sacrifices of the family. Moreover, with the rapid transitions from an agricultural society to an industrial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traditional Korean extended family systems are rapidly changing to nuclear families. In addition, Korean divorce rates ar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Besides couple problems, rising social issues include those of aging, delinquency, and single-parent families. We cannot ov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amilies as core units of a church, a society, and a country. However, seminaries in Korea are poor at equipping pastors for family ministry. Moreover, many pastors have focused on external church growth and lack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family ministry. Nevertheless, some institutions and churches are doing family ministry, despite problems resulting from lacks and inconsistency of both biblical and theological approache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s of family ministry, to diagnose the problems of Korean families and those of family ministry institutions and churches in Korea, and to propose that churches should be the ones to give families a healthy foundation by establishing, theologically,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and churches, proclaiming the importance of families again.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After the introduction in

chapter 1, chapter 2 develops the origin of the family and the purpose of the Christian family. It looks at research regarding definitions of Christian family ministry, the relationship of families with churches, and the necessity of family ministry.

In chapter 3, I will examin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ways of thinking and behavioral patterns, and then discuss modern Korean characteristics and their influence on families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s they cause for Korean families.

Chapter 4 describes the realities and the problems of family ministry in Korean churches. I will especially focus on five family ministry institutions deeply influencing Korean churches through relatively vigorous activities and research about family ministry, and I will focus on those in eight well-known churches, both in healthy denominations and in independent churches, which are providing active family ministries. This research provides the basis for my arguments about the overall problems of Christian family ministry in Korea.

Chapters 5 to 7 develop the following key subjects: Chapter 5 presents biblical teaching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as the foundation of a family, the couple, and discusses what the Bible says about marriage and what the Old Testament, Jesus, and Paul say about divorce. Chapter 6 develops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I will argue especially for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m beginning from honor and obedience of the parents, based on the Old Testament, Jesus, and Paul. Chapter 7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gain based on biblical teachings in the Old Testament, Jesus, and Paul, especially about child-rearing and education for parents.

Finally, chapter 8 will conclude with summaries and suggestions about family ministry for Korean churches.

Theological Mentors: Yea Sun Eum Kim, Dr.Soc.
Seyoon Kim, Ph.D.

감사의 말씀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 된 이래 긴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만큼 한국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정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기관들과 교회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 기초와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가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약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종에게 아름다운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하나마 이렇게 학문적 결실을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자상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엄예선 박사님과 김세윤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과 활용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후배요 동역자인 김상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0년 동안 즐거움과 고난의 삶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준 아내 김정숙 사모에게 감사하며, 또한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 창경이와 정은이, 그리고 영은이-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 논문이 완성 될 즈음에 외손자 시욱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더욱 큰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논문이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의 틀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2008년 3월 엄승용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4
제 2 장 가정과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	6
제1절 가정의 이해	6
1. 가정의 기원	6
2. 기독교 가정의 목적	7
3. 가정의 중요성	11
제2절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	14
1. 가정사역의 정의와 이해	14
2. 가정과 교회의 관계	16
3. 교회의 가정사역의 당위성	17
제 3 장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가정의 문제들	19
제1절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들	19
1. 감정적이고 정이 많음	20
2. 강한 배타성	21
3. 수직적 사고와 가부장적 권위의식	22
4.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향	23
제2절 현대 한국인의 특성	24
1. 물질만능적인 생활태도	24
2. 성(性)의식의 급격한 변화	25

3.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동방식	26
제3절 현대 한국 가정의 문제들	27
1.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	29
2. 노인문제	31
3. 청소년 문제	33
제 4 장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실태와 문제점	37
제1절 가정사역 기관들의 실태와 문제점	37
1. 두란노 아버지 학교 & 어머니 학교	37
2. 하이 패밀리(Hi - Family) - 송길원	41
3.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추부길	44
4.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 - 이희범	48
5. 세마 교육 연구원 - 현용수	50
제2절 한국교회 가정사역 실태와 문제점	54
1. 여의도 순복음교회 - 이영훈	54
2. 지구촌 교회 - 이동원	57
3. 영락교회 - 이철신	58
4. 광림교회 - 김정석	58
5. 주안장로교회 - 나겸일	59
6. 안산동산교회 - 김인중	60
7. 온누리교회 - 하용조	62
8. 할렐루야교회 - 김상복	63
제3절 한국기독교 가정사역의 문제들	65
제 5 장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69
제1절 남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69
1. 창조질서의 남녀관계	69
2. 타락질서의 남녀관계	85

3. 새 창조질서의 남녀관계	86
제2절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89
1.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91
2. 부모를 떠남	91
3.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92
4. 한 몸이 됨	94
제3절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95
1. 구약의 가르침	95
2. 예수의 가르침	98
3. 바울의 가르침	101
제 6 장 성인자녀와 부모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05
제1절 구약의 가르침	105
제2절 예수의 가르침	108
제3절 바울의 가르침	109
제 7 장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12
제1절 구약의 가르침	112
1. 사랑과 징계들 통한 자녀양육	113
2. 교육을 통한 자녀양육	114
제2절 예수의 가르침	116
제3절 바울의 가르침	127
제 8 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6
Vita	133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120여 년 전,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전래 된 이후 한국교회는 경이적인 발전과 내적성장을 이룩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 복음화들 위한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헌신,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좌우를 몰아 볼 겨를도 없이 "교회성장"이라는 목표들 놓고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고, 이들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들 위해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것만 보아도 이들 능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혹자가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성장했지만 그 불길에 데인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의미 있는 지적을 했듯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한 뒷면에는 그만큼 어느 부분에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농경위주 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구조 또한 격변하게 되었고, 현대인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인생관 등이 급변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한국가정도 급속히 변했다. 농경문화에 뿌리들 두고 전통적으로 "대가족 구조"를 가졌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구조가 서구화 내지는 현대화 되면서 가정구조 또한 "핵가족화" 되었다. 오늘날 한국인의 사고(思考)의 틀과 가정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조이

혼을 또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자, 노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대두 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앞으로 이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할 전망이다. 그리고 결손가정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가정문제로 인한 청소년 탈선문제는 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 되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가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루 속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들이며, 특히 가정은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核)이므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나 사회, 국가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정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본다. 가정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질 때 흔들림이 없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운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만이 병든 사회를 치유시키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을 깨달아 가정사역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학교에 가정사역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Curriculum)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사역에 대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고, 아직도 외형적인 교회성장에 주력하는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교회에서의 가정사역이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나마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일부기관들과 그 주자(走者)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기초가 부실하고 신학적 일관성이 결여된 채 가정사역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필자는 기독교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 부부관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온전한 가정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들 동시에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은 핵가족화 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대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가족 틀"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각한 가정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인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 자녀 교육 방법의 변화,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문제가 증가일로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가정문제들을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학적 기초(基調)위에서 신학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삼 세대(Three Generation)를 통괄하는 가정사역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려고 한다. 첫째, 본 논문은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명확히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교회에서 실시되는 모든 사역이 세상적인 원리나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학설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듯이 기독교 가정사역은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현주소들 볼 때 이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부관계,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기초(基調)를 튼튼하게 함으로 가정사역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전개 하도록 기여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은 한국 가정사역 기관들과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가정사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려고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도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교

회성장에 초점을 둔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가정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정사역을 실시하는 교회들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때 가정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가정사역기관들과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들 파악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잘못 설정된 목표들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한국교회가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기초로 하지 않고 가정사역을 실시하면 할수록 가정과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사역기관들과 가정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가정사역의 문제들을 진단해서 정리함으로 한국교회 가정사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본 논문은 오늘날 한국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들 명확히 진단하려고 한다. 가정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야말로 가정사역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들과 현대 한국인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들 비교 분석하여 그것들이 오늘날 한국가정에 어떤 문제들을 야기(惹起)시키고 있는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들을 연구할 때 한국가정의 문제의 근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현대 한국인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들 명확히 이해할 때 현대 한국가정의 문제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본 논문은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들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교회가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 가정사역의 주체가 되어야할 당위성을 밝히려고 한다.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범위

본 논문은 주로 국내외에서 출판된 서적들과 가정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필자의 논지를 진술해 나아가도록 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가정사역 기관들과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정사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들 진단하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려

고 한다.

따라서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가정의 기원과 기독교 가정의 목적, 가정의 중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독교 가정사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 할 것인가와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3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어떤 특성들이 있으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 가정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오늘날 가정사역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두란노 아버지/어머니학교, 하이 패밀리,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 그리고 쉼마 교육연구원 등 다섯 개 가정사역 기관들과 한국의 건전한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와 독립교회 가운데 가정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교계에 널리 알려진 여덟 개 교회들의 가정사역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이들 근거로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의 전반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려고 한다.

5장에서는 가정의 기초가 부부(夫婦)에서부터 시작됨에 따라 부부관계의 주체가 되는 남자와 여자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後),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혼에 대한 구약과 예수,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논의하려고 한다.

6장에서는 성인 자녀와 노부모 관계들 다루고자 하는바, 이는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면서, 부모공경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논의 하려고 한다.

7장에서는 부모와 자녀관계들 논의하려고 하는바,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논문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제 2 장

가정과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가정의 기원과 기독교 가정의 목적,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논의한 후에, 기독교 가정사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 할 것인가와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 하려고 한다.

제 1절 가정에 대한 이해

1. 가정의 기원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들 창조하실 때 가정을 직접 설계하셨고 친히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동안 천지들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셨으나 사람의 독처하는 것만큼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창2:18). 특히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때는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前)이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독처함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지으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조성 된 후(後)였음에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워서 여자들 만드신 후에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창2:21-22). 하나님이 그들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심으로(창1:28) 가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연발생적으로 우연히 생겨난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자

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창조 시에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시작된 최고(最古)의 기관이며, 창조의 한 질서(order of divine creation)이다.¹⁾ 이와 같이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나가는 도구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시켜나가는 방편으로써 신중하게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

2. 기독교 가정의 목적

Maston은 가정의 목적을 "종족의 번식, 이해와 사랑 그리고 동반자의 정을 제공함, 성적욕구의 정당한 표출을 위한 통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²⁾ 또한 엄예선은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공헌하는 사명을 감당함,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함"을 기독교 가정의 목적으로 이해한다.³⁾ 그리고 설은주는 "기독교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 명령은 제자를 삼는 일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중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중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기독교 가정은 사랑의 교제, 전도, 교육, 봉사의 가정, 교회로서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다.⁴⁾ 또한 그는 교회와 가정의 공통적 목적이 있는데 이는 "의미 있는 예배, 목적 있는 관계, 가정 중심의 전도와 선교, 타인에의 봉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⁵⁾

여기서 필자는 위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려고 한다.

가. 친밀한 가족관계를 통한 행복의 추구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좋지 않게 여기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

1) Emil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 worth press 1937), 348.

2) T.B.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54-58.

3)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112-124.

4)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47.

5) Ibid. 48-49.

다. 아담이 독처할 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고, 아담이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된 후였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은 결코 인간의 행복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독처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짝이 만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를 취하여 이브를 만들어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 후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부모들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2:24-25)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친밀함을 이룰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독처함의 문제도 해결됨을 보여준다. Jack O. & Judith K. Balswick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성적인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⁶⁾ 그러므로 인간의 성(性)은 인간의 심원한 신비 중에 하나이며,⁷⁾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다.⁸⁾ 성은 부부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언어이다.⁹⁾ 이렇게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설계에서 벗어나 심지어 동성애로 변질되는 등 여러 가지로 왜곡되고 뒤뉘리게 표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정당하게 성을 나눔으로 부부간에 친밀함을 유지하여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다.

바울은 성적(性的)인 절제가 어려워 정욕이 불탈 경우에는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으며(고전7:8-9), 예수는 성적(性的)절제가 특별한 은사라고 말씀하시면서(마19:10-12), 이 은사를 받은 자들만이 독신생활을 할 수 있으나 누구나 이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특히 예수는 세 가지 종류의 고자를 말씀하고 있는바, 태어날 때부터 고자 된 자, 사람들이 만든 고자, 그리고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자들이다(마19:12). 이런 자들은 남성(男性)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

6)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황성원 역 (서울: 두란노, 1995), 239.

7) Lewis B. Smedes, *크리스찬의 성*, 안교신 역 (서울: 두란노, 1976), 93.

8)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 *진정한 성*, 황병룡 역 (서울: IVP, 2002), 20.

9) Joyce Huggett, *결혼과 사랑의 미학*, IVP편집부 역 (서울: IVP, 1993), 125.

이 아니면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선물을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권태감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망은(忘恩)이라고 말한 존 칼빈은 말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¹⁰⁾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인간들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 자녀를 출산하여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함

천사는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눅20:34-36). 종족번식을 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창1:28).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연합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기독교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¹¹⁾ 그런 의미에서 Maston은 "남편과 아내들은 하나님의 대리 창조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한다.¹²⁾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 물론 결혼은 했으나 자녀들이 없는 가정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정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들로 올바르게 양육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출생한 자녀들이 최초로 접하는 교사는 부모이고, 최초로 접하는 생활환경과 양육을 겸한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다.¹³⁾ 이와 같이 자녀들의 사회적 행동 및 성격

10) 칼빈, *성경주해 - 공관복음(2)*,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0), 180.

11) 테니스 바바라 레이니, *내 곁에 있는 당신*, 금병달, 김정진 역 (서울: 순출판사, 1999), 127.

12)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54.

13) 김기숙, "기독교 가정교육," *인문총론15*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157.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이고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일차적 교육의 책임자인 부모의 올바른 신앙적 자세와 경건한 신앙적 가정의 분위기(Family Environment)는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나 선교원 등에서 몇 시간씩 보낸다고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은 자명하다. 신앙은 삶이며 생활이기 때문에 최초의 교사인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자녀들의 삶에 일평생동안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고유의 비공식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교사보다 중요하며 가정은 어떤 기독교 교육기관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도록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확장

이 목적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일 경우에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엄예선은 "대부분의 가정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함을 기독교 가정의 목적들 중 하나로 명시하지 않으나 이점은 기독교 가정의 매우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이며 가정사역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미가 깊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 능력, 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게 하는데 있다. 즉,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데 있다"라고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¹⁴⁾ 설은주는 "가정이야말로 교육과 선교의 산 현장이다. 그리스도인 가정처럼 강력한 복음전파의 도구가 없다"고 말한다.¹⁵⁾ Clapp도 기독교 가정을 "선교의 전략 기지(The Christian Home is a mission base)"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가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개인적인 피난처(havens)나 은거지(retreat)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mission base)에서 사는 삶이라는 일리 있는 주장을 한다.¹⁶⁾

14)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19.

15) 설은주, *가정사역론*, 19-20.

16) Rodney Clapp, *Families at the Crossroad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Maston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더 폭넓고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¹⁷⁾ 따라서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⁸⁾

예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3-16)고 말씀하신바 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 받기를 소망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불의하고 사랑 없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국교회는 건전한 기독교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전진기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가정의 목적은 첫째, 친밀한 가족관계들 통한 행복의 추구,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함,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 등이라고 본다.

3. 가정의 중요성

모든 사람은 가정 안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가정만큼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관은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은 이 세상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

구약성경은 일괄되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ell은 "십계명 가운데 세 계명(간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남의 아내를 탐하는 문제를 다룬 것)이 가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함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천명한다.¹⁹⁾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5계명, 7계명, 10계명에 이어 제 2계명도 가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 2계명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면서 이는 가문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와 연결되어 있음을

1993), 155-156.

17)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56.

18) Ray S. Anderson & Dennis B. Guernsey, *On Being Famil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5), 151.

19) Charles M. Sell, *가정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24.

진술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십계명 가운데 단일주제로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문제라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신약성경을 보아도 바울은 친족을 적극적으로 몰아볼 것을 권면함으로(딤후 5:8,16) 가정의 소중함을 천명했고, 특별히 그는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계약처럼 영원한 것으로 소개함으로(엡5:21-33) 가정의 중요성을 암시한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혈연적인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고 직접 혼인잔치 자리에 가셔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일(요2:1-11), 병든 자녀의 치유를 부탁하는 부모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신 일(막5:21-43, 7:24-30, 9:14-29, 눅7:11-17), 귀신들려 고통당하던 사람을 치유해서 그의 집으로 돌려보낸 일(막5:1-20),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일(마19:13-15), 그리고 이혼을 금하신 일(마19:3-12) 등은 예수가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제도로서의 가정을 보호하셨는가를 깨닫게 한다. 특히 예수께서 비유와 유추의 근거로 열 처녀 비유(마25:1-13)에서와 같이 결혼과 가정을 사용하셨고, 계시록에도 소위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계 19:6-10)으로 보아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바울이나 예수는 교회들 가정보다 더 우선적인 공동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다만, 부모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반대할 경우 그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예수의 뜻을 좇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일 때 전자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으나(마10:34-39), 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무조건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가족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견 되거나 더할 수 없음을 가르치신 말씀이다.²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눅 14:26), 이 말은 그리스도보다 가족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가 항상 으뜸이 되어야 한다(골1:18)는 말이지 가족에게 종오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아니다.²¹⁾ 칼빈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인간적인 인연을 끊으라고 말씀하

20) 이상근, *신약주해 마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7), 183.

21) 핸드릭슨, *성경주석 누가복음 (중)*,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8), 509.

지도 않고 자신의 혈족들에게 마땅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며 오직 인간 상호간의 정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조절해서 본분에 대한 교만이 경건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으로 이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²²⁾

Sell은 "어떤 관계도 가정만큼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없으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면서, 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미국인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을 얻는 것이나 보람 있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소개함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²³⁾

Maston도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이다. 시간적으로 첫 번째이고 또한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이다. 모든 기본적인 제도를 즉, 가정, 교회, 국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가정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⁴⁾

가정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고, 나아가서는 교회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종교기관인 것이다. 한 문화의 상태를 가정의 건강과 병들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바로미터(barometer)는 또 없을 것이다.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에 따라 그 밖의 모든 것들 즉, 학교, 교회, 그리고 문화 그 자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상복은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다.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보다 더 강할 수 없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국가가 되는 것이다"²⁵⁾라고 말함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가정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생활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짙으며,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물량적인 교회성장을 우선 추구해 오면서 외형적인 교회성장은 이루었으나 다른 한쪽에 희생이 뒤따

22) 칼빈, *성경주해 공관복음1*, 칼빈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419.

23) Sell, *가정사역*, 19.

24)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75-76.

25) 김상복,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서울: 나침반, 1997), 19.

랐던 것도 사실이다. 혹자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은 타오르며 부흥할 때 그 불길에 데인 곳이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가족우상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움으로 든든한 교회들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정사역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절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

1. 가정사역의 정의와 이해

가정사역이란 무엇인가? 가정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Sell은 가정사역을 교회사역으로 보면서 "영적이며 도덕적인사역, 복음전도, 제자훈련, 성경의 적용, 예방사역이다"라고 정의 했다.²⁶⁾ 정정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사역"이라고 정의한다.²⁷⁾ 설은주는 가정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이해한다.²⁸⁾

가정사역이란 첫째, 기독교 가정생활의 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일을 지도하고 강화하는 목회이며, 둘째, 가족 내에서의 기독교적 양육을 포함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사역이며, 셋째, 회중이나 교회 기관 안에서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넷째, 세계 안에서 즉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를 성취해가는 사역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가정사역은 일시적이고 단속적인 목회사역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모든 가족들에게 행해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사역은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젊은이 층과 노년층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정생활의 실천적인 모습들 속에서 인간 관계성에 관한 성서적 개념들을 배우며, 모든 가정들의 건강과 관계성을 위해 교육하며 영향을 주는 일을 의미한다.

엄예선은 가정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²⁹⁾ 첫째, 가정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러한 친밀한 인간관계들을 회복하고자

26) Sell, *가정사역*, 19-33.

27)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20.

28) 설은주, *가정사역론*, 297.

29)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320-323.

하는 인간관계 개발사역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개발시키는 은사개발사역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가정사역은 가정의 중요성을 교회가 인정할 때만이 이루어지며,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이 땅위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세우는 사역이다. 셋째, 가정사역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교회 안과 밖의 가족들의 문제들을 예방해 주는 예방사역이다. 넷째, 가정사역은 문제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사회의 약자들 등 특별히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을 치유해 주는 치유사역이다. 다섯째, 가정사역은 교회가 믿음의 확대가족이 되어서 예방사역과 치유사역을 잘 수행하는 예방 및 치유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들 올바르게 세우는 사역이다. 여섯째, 가정사역은 교인들 사이에 가족 같은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관계들 바탕으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도록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목회활동들이다. 일곱째, 가정사역은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의 비그리스도인 가정들의 다양한 필요들에 부응하며, 나아가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의 가족을 발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회활동들이다. 여덟째, 가정사역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가족관련 공공정책 수립과정, 가족법 개정 과정, 건강한 지역사회 건립 운동,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가족사회복지 활동들에 깊이 개입함을 포함한다. 아홉째, 가정사역은 평신도 사역이다. 열째, 가정사역은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해산의 수고들 사역자들에게 요하는 목회활동이다. 열한째, 가정사역은 성경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시에 요하는 사역이다. 열둘째 결론적으로 가정사역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공유하는, 올바른 신학적 기반 위에 정립된, 가정을 중요시하는 목회관, 혹은 목회의 총체적 시작이다.

학자들의 위와 같은 가정사역에 대한 이해와 정의들을 바탕으로 기독교 가정사역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정사역이란 가정을 돕고 가정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회의 모든 사역으로써 목회자와 평신도가 성경의 토대위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의도하신바대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체적인 목회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친밀감을 회복하여 행복을 누리게 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을 치유하도록 도우며, 특히 가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적으로 예방하는 사역이라고 본다. 한결음 더 나아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움으로 교회들 올바로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도모하는 모든 기독교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가정과 교회의 관계

미래학자로 알려진 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오늘날 또 다시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파괴에 휩싸여 가책을 받고 있는 것은 경제적 파멸에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³⁰⁾ 오늘날 그의 말이 적중한듯하다. 한국의 많은 가정들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부간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정도를 넘어서는 청소년 탈선문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문제, 성도덕의 문란 등 수 많은 가정문제들에 현대가정들이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가정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 진다. Sell은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마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당한 희생자와 같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가정을 도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³¹⁾ 교회와 가정은 매우 밀접하고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다. Sell은 "제도로서의 가정과 교회는 목이 붙어서 태어난 삼(siamese) 쌍둥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³²⁾ 또한 그는 "교회와 가정은 자연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와 개미와 같이 공생관계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³³⁾ Sell의 말대로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공생관계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 교회도 견고히 설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30) Alvin Toffler, *제3의 물결*, 박문호 역 (서울: 대명사, 1984), 200.

31) Sell, *가정사역*, 31.

32) Ibid, 32-33.

33) Ibid, 21.

3. 교회의 가정사역의 당위성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신성한 기관들이며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정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ll은 교회가 가정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자들의 무관심. 둘째, 목회자 가정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 셋째, 목회자가 가정사역 외에도 해야 할 일 들이 너무 많음. 넷째, 가정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훈련과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 다섯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가정은 희생 되고 무시되어야 한다는 생각 등이라고 주장 했는데³⁴⁾ 일리 있는 지적으로 보인다. 교회는 반드시 가정사역에 목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엄예선은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³⁵⁾ 첫째,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교회는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교리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을 돕기 위해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가정문제들을 잘 예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가정사역을 실시해야 한다.

목회가 복음전파는 물론 상처 난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권위하는 일, 공동당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때³⁶⁾ 가정사역을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ell은 그의 저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의 서론에서 "가정사역은 교회사역이다"고 천명한 바 있다.³⁷⁾ 따라서 교회와 목회자는 가정사역을 교회차원에서 실시하는 단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목회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건강한 교회들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가정사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Robert Lynn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은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³⁸⁾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34) Sell, *가정사역*, 19-20.

35)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352-368.

36) 시워드 힐트너, *목회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90.

37) Sell, *가정사역*, 15.

38) Robert Lynn, *Protestant Strategies in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1964), 25.

기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사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선교와 전도의 전진기지(base camp)이기도 하다. 특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도는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는 곧 "가정부터"라고 적용할 수도 있다.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3:1)고 했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들 돌아보리요"(딤후3:5)라고 말함으로 사역과 전도의 우선순위가 가정에 있음을 가르친 바 있다. 따라서 가정이 흔들리고 붕괴되면 선교의 기반이 흔들리고 붕괴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같이 가정사역은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이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또한 가정은 전도와 선교의 절대적인 기반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가정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들 명확히 진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한국인의 특성과 가정의 문제들이 무엇인지들 논의하려고 한다.

제 3 장

한국인의 특성과 한국 가정의 문제들

본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행동양식은 어떤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현대인들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이러한 특성들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 가정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려고 한다.

제1절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들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은 고유의 농경문화와 외래문화인 유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국토 자체가 농경(農耕)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고래로부터 농업자연경제(農業自然經濟)를 바탕으로 안정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현실에 집착하고, 강인하고, 정체(停滯)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³⁹⁾ 식생활도 자연히 채식(菜食)이 주식(主食)이었고,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고, 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왔다.⁴⁰⁾ 농경문화는 대가족제도의 틀을 낳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족주의적인 집단의식이 강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농경문화의 특성은 유동성이 필요 없으며, 동시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가족들이 한곳에 모여서 살게 됨에 따라 가족주의적인 집단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규태는 가족이나 친족 등 혈연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집단의식은 이 세상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전제하고 "한국인은 나라를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도 집이나 가문을 위해서는 손쉽게 죽을 수 있고 또 죽어왔다"고 말한다.⁴¹⁾ 이어령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해서 가족 관념이 짙은 것이 우리나라"라고

39) 신인현, *새 시대 새 윤리*, 현대청년 시리즈Ⅱ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1), 39.

40)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1982), 101.

말했다.⁴²⁾ 김태길도 "조선조시대 중엽 이후는 국운의 쇠퇴와 사회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 대해 실망한 백성들의 관심은 자연히 가족중심의 생활에 고정시켰다"고 주장한다.⁴³⁾ 따라서 전통적 한국인의 특성은 농경문화 속에서 형성된 가족주의적인 집단 의식이 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교문화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치관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계통의 외래문화가 유입되었다. 그 외래문화 가운데는 만주 • 몽고계통, 중국계통, 남방계통, 인도 • 서역계통, 북방계통, 서구계통 등이 있다.⁴⁴⁾ 이와 같이 여러 계통의 외래문화가 우리나라에 전래 되면서 농업중심의 전통문화와 접목되고 융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독특한 가치관이 형성 되었다고 본다. 외래문화 가운데서 기독교와 서양의 물질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정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유교문화다.

여기서 필자는 농경문화가 낳은 대가족제도에서 발달 된 가족주의와 전래문화인 유교문화 속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무엇인지들 논의하려고 한다.

1. 감정적이고 정이 많음

농경문화는 가족주의적인 집단 의식을 강하게 형성시켜왔다. 가족이란 원래 편의나 이익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결성한 단체가 아니라 성(姓)과 혈연의 유대들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다. 그러므로 그 내부 질서 유지들 위해서 중요한 것은 '법'이나 '규칙' 보다는 '온정'과 '사랑'이기 때문에 가족주의가 온정적인 생활태도를 낳았다고 본다.⁴⁵⁾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경위를 따짐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와 같은 온정적인 태도는 가족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줌으로 문제들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합리적이며 냉철한 태도가 요구되는 가정문제에 대해서도 감정을 앞세워 흥분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41)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상)* (서울: 문리사, 1977), 239.

42) 이어령, *훈숙에 저 바람 속에* (서울: 범서출판사, 1982), 116.

43)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1982), 164.

44) 신인현, *새 시대 새 윤리*, 40.

45)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164.

많다. 이와 같이 가족주의적인 온정적 태도는 결국 감정적이고 정이 많은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정(情)적인 사고로 인해 합리성이 결여되기 쉬운 경향이 짙게 되었다.⁴⁶⁾ "햇김에 서방질 하 고",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속담이 이를 반영하거니와,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사고(思考) 및 행동(行動)에 있어서 이지(理智)를 앞지르는 감정이 우세한 경향이 있어 감정적이고 정(情)이 많은 민족으로 알려져 왔다.⁴⁷⁾ 그 "정(情) 때문에 "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과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정적인 생활태도는 객관적으로 공정무사(公正無私)한 처사가 요구되는 경우에서도 정실(情實)에 이끌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표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나 문제가 발생 되었을 경우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원리들 근거하거나 교회법을 앞세 워 사태를 처리하기 보다는 정에 호소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2. 강한 배타성

가족은 성과 혈연의 유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이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는 사랑과 정을 통해서 쉽게 뭉쳐질 수 있지만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족주의적인 생활태도는 가족 또는 친족들의 문제에 관련해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생활영역에서도 나타나는바, 같은 마을, 같은 학교, 같은 고향이라면 서로 뭉치는데 문제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삼한(三韓)시대부터 농촌사회에 "두레"라는 조직체가 있어서 부락의 경계단체 또는 군사, 근로, 경기 내지는 유흥의 단체역할을 했고, 지금도 공동작업, 공동경기 및 유흥의 기능이 남아 있어서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서 일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문제가 없다.⁴⁸⁾ 그러나 다른 가문이나, 다른 마을,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색채를 띠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은 공공의식이나 국가 의식이 빈약하다"고 이규태는 주장한다.⁴⁹⁾ 이와 같은 배타성으로 인해서 특히

46) 이성희, *일제시대 민족회리포트* (서울: 규장, 1999), 15.

47)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164.

48) 신인현, *새 시대 새 윤리*, 42.

49) 이규태, *속 한국인의 의식구조 (상)* (서울: 신원문화사, 1983), 341.

세계 160여 개국의 사람들이 이민 와서 함께 살아가는 미국의 경우, 한국인들은 타민족들과 쉽게 어우러지지 못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심지어 개인주의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배타성이 가족 간에서조차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가정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런 배타성은 교회 안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연합운동에 많은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수직적 사고와 가부장적 권위의식

기독교와 서양의 물질문명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민족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유교문화라고 본다. 유교문화가 유입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농경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대가족제도를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족주의에서 발달된 수직적 사고와 권위의식이 유교문화와 매우 친숙하게 되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 발전되게 됨에 따라 많은 가정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본다. 유교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어왔고, 오늘날에도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⁵⁰⁾ 그 유교문화의 잔영은 아직도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⁵¹⁾

50)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86쪽을 보면, 1995년의 한, 중, 일 3국 학자들의 동양 문명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교적 동양 문명이 근대 세계의 보편적 사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 90%, 중국 22%, 일본 63%로 동양 3국 중 한국이 가장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1996년 KBS와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한중일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바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보다도 더 강한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 의 예로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남성응답자)은 한국인이 38%인데 반해, 중국인은 19%이었으며, 또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이 한국인이 60%인데 반해, 중국인은 28%에 불과했다.

51) 권용혁이 2003년에 한국, 중국, 일본 각국에서 500명씩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3국 총 90쌍의 심층 면접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한국76.8%, 중국49.3%, 일본35.8%, "가족 개개인의 권리가 가족의 화목보다 더 중요하다" (부정의 답)한국51.1%, 중국37.6%, 일본23.8%, "가족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한국52.5%, 중국30.7%, 일본19.6%, "재산 상속 시 장남과 남자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한국30.6%, 중국23.2%, 일본13.4%, "가정 내의 위계질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한국75.2%, 중국56.8%, 일본 24.8%, "남편과 아내는 각각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 한국36.7%,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수직적 사고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목회자가 많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넉넉하게 짐작하게 된다.

4.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향

특히 유교문화는 예절을 숭상한다. 예절이란 행동의 형식과 절차를 심하게 따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예절숭상의 전통은 생활전반에 걸쳐서 외관과 형식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⁵²⁾ 따라서 한국인들은 체면의식이 강하며, 그로인해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이중구조(二重構造)사회를 형성한 것으로 이규태는 평가한다.⁵³⁾ 이성희도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외형적이며 형식적인 삶의 문화들 창조해 냈고, 내실보다는 가식이 발달한 체면문화가 사회를 지배했으며, 형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가운데 투명성이 부족했다면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투명성은 짐바브웨와 동일하며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나라가 말라워였다"고 소개했다.⁵⁴⁾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실보다는 외관과 형식을 앞세우는 경향은 의식주 어느 생활측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속옷보다는 겉옷에 더욱 신경을 쓴다든지, 식탁에서도 몇 가지 반찬이 밥상에 올라왔느냐를 따지는 등 허례허식(虛禮虛飾)이 가정생활 깊숙이 파고들어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일으켜 왔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는 정(情)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사내대장부는 감성적인 면을 보이면 안 된다" "사내가 우는 것은 사내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교육을 받아 심지어 '우는 것'조차 체면이 손상된다는 의식 때문에 자기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가운데 내면적 상처가 깊이 굼게 되었고, 이것이 예측하지 못하

국56.1%, 일본51.6%, "여성에게는 사회활동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 45.7%, 중국46.2%, 일본32.6%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한국사회에 아직도 얼마나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가족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자료출처: 권용혁, *가족과 민주주의*,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61-62에서 재인용.

52)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166.

53)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상*, 278.

54) 이성희, *필레미엄목회리포트*, 30-32.

는 시기에 자학(自虐)이나 폭력 등의 방법으로 폭발됨으로 많은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한국교회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장통교회"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전주 안디옥교회(담임목사 이동휘)같은 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것에 목회성공의 기준을 두어 외형적인 부흥과 발전에 주력하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한국인의 특성은 감정적이고 정이 많으며, 배타성이 강하고, 수직적 사고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팽배함과 동시에 외관과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특성은 가정과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제2절 현대 한국인의 특성들

전통적인 가치체계와는 많이 달라진 현대 한국인들의 특성을 진단해보면, 대체적으로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물질만능적인 생활태도가 팽배해졌고, 성(性)에 대한 의식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관능적인 쾌락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가족이나 집단 중심의 가치관으로부터 점점 벗어나 개인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적인 성향이 노골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한국인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1. 물질만능적인 생활태도

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르면 금전 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은 권장할만한 것이 못되었다. 우리민족의 전통은 풍류와 예술, 학문과 도덕 등 정신적 가치를 높게 인정한 반면 금전이나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저속한 삶의 태도로서 물질이란 의식주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수에 맞는 삶을 꾀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 집이라고 인정 되었다. 이규태는 "서양인을 지배한 것은 안부철학(安富哲學) 이었고, 한국인을 지배한 것은 안빈철학(安貧哲學) 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⁵⁵⁾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사고(思考)가 많이 달라졌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의 생활태도는 물질

55)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하)* (서울: 문리사, 1977), 41.

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적인 가치풍토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⁵⁶⁾ 아직도 생각과 말에 있어서는 금전 내지 물질을 가볍게 여기면서 정신적인 가치들 우위(優位)에 두는 것 같지만, 실제 행동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사고는 역시 물질에 대한 욕망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말 가운데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돈 없이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은 유행어는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Gary R. Collins은 현대인들의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⁵⁷⁾ 한국 사회에 이른바 복권(Lottery)과 도박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과 맘을 홀리지 않고서도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노리는 불한당(不汗黨)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함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낳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추구하는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학문, 예술, 운동, 교육,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때에도 그 사람이 소유한 재산 또는 경제적 활동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심지어 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다소(多少)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가정은 복된 가정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은 행복에서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현대 한국 가정문제 대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성(性) 의식의 급격한 변화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성(性)에 대한 의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관능적 쾌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졌다. 관능적 쾌락을 좇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만 해당 되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세계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이고 인류가 이 땅 위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일들이 만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도 이것과 무관하

56)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168.

57) Gary R. Collins, *파워리더*, 최애자 역 (서울: 프리셋트, 2001), 183.

지 않으며(창6:5-7), 소돔과 고모라 성(城)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도 바로 이런 삶의 태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벧후2:7). 다만, 과거에 비해 성생활을 비롯한 육체의 쾌락을 공공연하게 찬미하고 있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성을 매개로하는 향락산업이 공공연히 확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성(性)에 대한 의식의 급격한 전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임신・출산의 자유, 피임방법의 개발로 인한 성생활의 자유, 향락산업과 그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달 등에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물질만능적인 사고방식과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문이나 예술 같은 정신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한꺼번에 필요로 하나, 쾌락은 돈만 주면 당장에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인들의 성(性)에 대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는 가정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가정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급격한 의식의 변화는 이혼의 급증으로 인한 홀부모 가정의 증가와 복합가정・혼합가정의 증가, 그리고 청소년의 탈선 등 현대 한국가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전개함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고 본다.

3.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동방식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생활태도는 황금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능적 쾌락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매우 경쟁성이 강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깊이 연결된 타인과의 연속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⁵⁸⁾ 특히 가족주의가 발달되어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한국인은 '나'에 보다 접근돼 있는 가족・혈연의 제1인간 층에 가장 친숙했다.⁵⁹⁾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적인 행동경향을 띠는 것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 서양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강하게 발달되었고, 일찍부터 발달된 계몽주의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의 횡포를

58) 이규태, *서양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85), 127.

59) Ibid., 63.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情)적인 사고가 워낙 깊어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에서 발달된 집단 이기주의 경향이 짙었고, 8.15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이 겹치면서 '자유주의' 혹은 '개인주의'의 이름으로 도입된 서구의 사조(思潮)가 정제(淨濟)의 과정 없이 독선적인 개인주의 내지 이기주의로 전락되고 말았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동방식은 현대 가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양육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서로가 가능하면 아이들을 맡지 않으려고 해서 심지어는 '이혼고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엄예선의 지적에서⁶⁰⁾ 현대인들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을 가졌는가를 깨닫게 된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율은 우려할만한 수준에 도달한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1.13명(잠정)으로 일본(1.32명), 이탈리아(1.35명), 프랑스(1.98명), 영국(1.80명), 독일(1.34명), 미국(2.05명) 등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았다.⁶¹⁾ 이는 현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의 특색은 농경문화와 전래문화인 유교의 영향을 받아 감정적이며 정이 많음, 강한 배타성, 수직적사고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 물질문명의 영향을 깊게 받은 현대 한국인들은 물질 만능적인 생활 태도, 성(性)의식의 급격한 변화로 관능적인 쾌락을 우선 추구하는 경향,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동방식을 갖게 되어 개인과 가정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제3절 현대 한국 가정의 문제들

현대 한국가정은 전통적인 가정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다시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전환된 이후 물리적

60) 엄예선, *전전한 기독교 가정*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38.

61) "한국,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된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10일자.

인 주거공간은 확실히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아직도 대가족 제도의 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는 명절 때마다 "민족대이동"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고향과 친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대가족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최복림도 "한국사회는 정신없이 빨리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가족체제는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실제 구조는 핵가족의 형태이지만 관계상으로는 대가족 구조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⁶²⁾

박민선은 한국가정의 변화들 "3세대 직계가족의 감소, 노인 가족, 맞벌이가족, 이혼 • 재혼 가족의 증가" 등을 들면서, 이러한 변화의 요인으로 "첫째, 산업화와 그에 수반되는 인구의 이동.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직업과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 넷째, 개인주의 의식의 성장" 등을 지적했다.⁶³⁾

함인희는 "현대가족의 특징은 확대가족 및 친족과의 유대가 약화되고, 지역공동체와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된 위에서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요,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며, 가족성원들에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가 발달되는 장이다"라고 말했다.⁶⁴⁾

설은주는 현대 핵가족의 문제점을 "자녀교육, 세대차와 대화단절, 노인문제, 가족이기주의, 가족파괴 및 이혼의 증가, 경제만능주의, 성적 방종 및 타락, 그리고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들고 있다.⁶⁵⁾

송성자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민주적 가치관의 유입으로 현대 한국가족의 부부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이 상존하여 부부간의 권위와 자원배분이 불평등하며 남편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부인이 종속적 지위를 갖는 가부장적 위계구조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⁶⁶⁾

이와 같이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가족 간에 가치관의 혼재현상이 나타나 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별히 급격하게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62) 최복림, "가족치료의 가치와 문화," *가족치료 총론* (서울: 동인, 2000), 561.

63) 박민선, "다양한 가족생활,"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8), 292-293.

64) 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51.

65) 설은주, *사정사역론*, 137.

66) 송성자, "한국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가족치료 총론*, 589.

있음을 본다.

여기서 필자는 현대 한국가정에서 나타는 문제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로서 부부가 건강한 사이를 유지할 때 가정이 건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가정의 부부문제는 큰 우려를 낳게 하는데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이혼율은 다음과 같다.⁶⁷⁾

년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이혼건수(천건)	45.7	68.3	120.0	167.1	139.4	128.5	125.0
조이혼율(천명당)	1.1	1.5	2.5	3.5	2.9	2.6	2.6

위의 표로 볼 때 한국인의 이혼율은 IMF 사태 이후에 급격히 증가 된 것으로 보여 지며, 2003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인의 이혼율은 매우 높다고 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한국의 조이혼율은 2.9명으로 러시아(4.4)보다는 낮지만, 중국(1.3), 일본(2.1), 독일(2.6), 스웨덴(2.2), 스위스(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⁶⁸⁾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이혼 사유별로 이혼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⁶⁹⁾

67) "우리나라 이혼율, 그렇게 높은가?" 통계청,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68) "인구동태 및 밀도." 통계청,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69) "이혼 사유별 이혼." 통계청,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년도	2000		2002		2004		2006	
항목	천 건 구성비		천 건 구성비		천 건 구성비		천 건 구성비	
배우자 부정	9.7	8.1	12.6	8.6	9.7	7.0	9.4	7.6
정신적/육체적학대	5.2	4.3	6.9	4.8	5.9	4.2	5.6	4.5
가족간 불화	26.3	21.9	20.9	14.4	14.0	10.1	11.1	8.9
경제적 문제	12.8	10.7	19.7	13.6	20.5	14.7	18.3	14.6
성격 차이	48.2	40.1	65.0	44.7	68.8	49.4	62.2	49.7
건강상	1.1	0.9	0.9	0.6	0.9	0.6	1.0	0.8
기타	15.6	13.0	17.9	12.3	16.9	12.1	15.0	12.0
미상	1.2	1.0	1.4	1.0	2.7	2.0	2.4	1.9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인의 이혼사유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차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는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가치관의 혼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도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강하게 남아 있는 반면, 여권신장(女權伸張) 등으로 특별히 여성들의 가치관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여기서 오는 갈등의 심화로 부부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뿌리들 내린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목회자들이 많은 실정이며, 심지어 가정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과 교회들이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농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정사역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들마저도 가부장적 권위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문제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성격차이 다음으로 높은 경제적인 이유와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배우자의 부정 등도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활태도와 성(性)에 대한 의식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 행동경향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인의 가치관의 특성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간의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현대 한국가정의 위기가 고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성경을 바탕으로 올바른

가정신학을 정립하고 부부관계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부들 위한 가정사역을 시급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2. 노인문제

오늘의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의식주(衣食住)가 현격하게 개선되었고, 의료시설의 확충과 신 의약품의 개발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14%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규정하는바, 우리나라는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3백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함으로써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⁷⁰⁾ 또한 우리나라는 2022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프랑스가 1백 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그리고 일본은 26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2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고령사회로 변화될 전망이다.⁷¹⁾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한 노인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사고(思考)의 틀이 바뀌면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노인부양의 형태는 금전이나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 마음을 편안하게 시종들어주는 복지적 부양, 그리고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서적 부양으로 나누어지는데,⁷²⁾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들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농경문화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 급격하게 사회구조가 변화됨과 동시에 가정의 구조도 바뀌어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에 따라 전통적인 부모의 부양방법이 변화되었다. 특별히 주부취업의 증가는 신체적 • 심리적으로 허약해진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켰고,⁷³⁾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풍조가 당연시되고 있으며, 아들도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⁷⁴⁾ 심지어 깊은 산속이나 섬 등에 부모를 버리는 "신(新) 고려장"이 발

70) "행정구역별/연령/성별고령자," 통계청,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71) "'젊은 노인' 일자리 늘려야," 중앙일보 2001년 10. 15. 사회면.

72) 최순남,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신학연구 제25집 (서울: 한신신학연구소, 1983), 370.

73) 김동배, "한국가정과 노인문제 그리고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동권 제401호), 27.

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물질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해 주변을 몰 볼 겨를도 없이 돈을 모으려는 생활태도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특성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헌신하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에 따른 연금제도가 미약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녀 등 가족들의 전적인 도움이 없다면 노인들의 생계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둘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엄예선은 "한국가정의 문제점은 한 집안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와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공존함으로 가족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문제는 "윗세대는 가족주의, 체면주의, 권위주의 등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 실용주의, 평등주의 등의 가치를 고수하고 있음으로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한다.⁷⁴⁾ 현재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젊음을 바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앞만 보고 일하는 사이에 사회구조는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전통적 가치관 또한 급격히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한 가정 안에 가치관의 혼재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어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대가족제도의 틀이 짧은 기간 안에 무너지고 급속히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들이 떠난 빈 둥지를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 부산시가 부산시내 만 65세 이상 노인 8백 28명(남자 2백31명, 여자 5백97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실시한 "노인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70%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고, 특히 건강이 악화 되었을 때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노인이 75%가 되었다.⁷⁵⁾ 이는 노인들이 외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노인들이 겪는 심

74) 최순남,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신학연구* 제25집, 371.

75) 엄예선, *전전한 기독교가정*, 40.

리적 소외나 고독은 하루 빨리 치료 되어야 할 큰 아픔이요 상처라고 본다.

넷째, 노후에 무위(無爲)도 오늘날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보여 진다.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는 60-65세의 평균수명에 맞추어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평균수명이 80을 바라보는 오늘날 오히려 은퇴 시기는 55세 이하로 빨라지고 있고 이 때문에 노인들은 은퇴 후 20-30년을 아무 할 일이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조기 은퇴 후에 적당한 일거리를 계속해서 마련하는 등 노후의 무위(無爲)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노인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부상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노인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사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3. 청소년 문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행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77)

첫째, 청소년은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 유행에 민감하고, 자유분방하며,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진다.

둘째, 감각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 행동패턴을 지향하는 경향이 많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영상매체나 뉴미디어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으며, 욕구충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셋째, 자기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들 지니는지에 대해 별관심이 없다.

넷째, 자신의 맘과 노력을 통한 대가를 바라기 보다는 노동을 기피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돈

76) "부산지역 노인들 '자녀와 살고 싶다.'" 중앙일보 2001년 1월 10일, 사회면.

77)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김영환 외, 한국 청소년 문제 행동 종합대책 연구Ⅲ,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5), 9에서 재인용.

만 별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며, 성에 대한 상품화나 무조건적 동경심 또는 낭만적 사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많은 변화들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지만 과도기로서의 특성상 변화에 부적응하는 일부 청소년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 문제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야기된다고 본다. 최원기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들 중 대표적인 요인은 부모와의 갈등, 불화, 대화부족, 지나친 기대, 이혼, 사별, 폭력, 권위주의 등과 같이 주로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⁷⁸⁾

이영숙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가족문제에 대해 부부간 교부간 부모자녀간의 불화,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부재 및 단절,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과잉교육열,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 부모의 지나친 허용적 양육태도, 강요에 의한 자녀 통제, 물질중심의 양육태도,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한 무지에 대한 부모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⁷⁹⁾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한 가족 안에 세대간, 남녀 간에 가치관의 혼재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모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들은 자유분방한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고, 세대 간에 생활방식(Lifestyle)이 달라지면서 가족 간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고, TV나 인터넷 등 영상매체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절대 부족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교육방법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한국인들은 서구적인 교육방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부모는

78) 최원기,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1), 33.

79) 이영숙, *청소년기 가족문제*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1994), 9.

자녀들의 특성을 개발해주고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한다."⁸⁰⁾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교육함으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자칫 방종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또한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짐에 따라 편부모 가정, 혼합가정, 복합가정 등 역기능 가정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자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등이 청소년 문제를 자아내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됨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의 부족도 청소년 문제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문제는 가정문제와 매우 밀접하다고 본다.

둘째로,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가 발생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이 건전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패턴을 가지며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유해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2002년 현재 746,217개소로 청소년 인구 1,000명 당 65개소에 이르며,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인 유흥주점의 경우 1995년 16,306개소, 1997년 17,241개소, 2001년 26,539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⁸¹⁾ 청소년 유해 환경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불건전한 전자영상매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 무한 접촉할 수 있고, 컴퓨터나 오락에 탐닉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폭력이나 음란물 등 저속한 영상물에 대한 접촉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고 3이상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의 사용 경험은 미국을 앞지르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집단 패싸움이나 이지매 등이 많아졌고,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가출, 혼숙이나 원조교제 같은 청소년 관련 성범죄도 심각한 상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8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 (서울: 도서출판 웨마, 2006), 201.

81) 김영환 외, *한국 청소년 문제 행동 종합대책 연구III*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5), 4.

청소년은 가정은 물론, 국가, 그리고 교회의 차세대 주역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미래 사회가 보장 된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하지만 특히 한국교회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정사역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한국인은 농경문화 속에서 발달된 가족주의와 외래문화인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아 감정적이고 정이 많음, 강한 배타성, 수직적사고와 가부장적인 권위의식, 그리고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띠는 특성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들은 서구의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물질만능적인 생활태도, 성에 대한 의식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행동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한국인들은 가정의 수만큼이나 많고 복잡하고 다양한 가정문제들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되어 한 가족 간에도 윗세대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아랫세대는 현대적인 가치풍토에 익숙하며, 남녀 간에도 가치관이 혼재함에 따라 많은 가정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부부간의 문제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의미하며,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오늘날 노인문제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들 하루 빨리 해결해야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장래가 밝게 된다고 본다.

이에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한국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부부관계,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가정사역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들과 가정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의 가정사역의 현 실태와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 계속하려고 한다.

제 4 장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실태와 문제들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의 실태와 문제들을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가정사역 기관들과 교회들의 가정사역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⁸²⁾, 이들 근거로 한국 기독교의 가정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려고 한다.

제1절 가정사역 기관들의 실태와 문제점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가정사역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사업, 프로그램의 실태, 교육내용,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며 논의하려고 한다.

1. 두란노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

가. 설립목적과 사업

백승현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논문집에 기고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10년, 그 성과와 평가"라는 글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설립배경과 비전, 그리고 설립목적 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⁸³⁾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에 두란노

82) 여기서 살펴보고 논의하려는 대표적인 가정사역기관들과 교회들은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2007년 9월 4-21일, 2007년 11월 12-17일) 입수 가능한 자료들의 분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으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와 토론, 그리고 출판된 서적 등을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평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밝힌다.

83) 백승현, "두란노 아버지학교 10년, 그 성과와 평가," *두란노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6.

서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캐치프레이즈아래 처음 시작되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비전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남성, 가정의 제사장,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을 펼쳐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목적은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 잡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몰려보내고, 아버지가 이제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의 핵심이 되며,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명을 아버지들이 감당하기 위해 나서도록 격려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2006년에 발행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재에 의하면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특징은 첫째, 강력한 성령운동. 둘째, 삶의 실천운동. 셋째, 연합운동임을 천명한다.⁸⁴⁾ 그러나 2005년 교재들 보면 셋째 "연합운동" 대신 "평신도 운동"이라고 되어있었음을 비추어볼 때 이 학교의 활동에 수정을 가한듯하다.

한편, 두란노 어머니학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되었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여성으로서 올바른 자아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설립 목적임을 밝힌다.⁸⁵⁾

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은 찬양과 간증, 숙제 나눔 후 발표, 주제별강의, 주제 나눔, 예식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내용과 예식 및 숙제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⁸⁶⁾

84)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재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9.

85)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교재 (서울: 두란노 어머니학교, 2007), 10.

86) 장상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두란노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57.

주	주 제	예 식	속 제
1	아버지의 영향력	애찬식	아버지에게 편지쓰기 자녀에게 편지쓰기 축복기도와 허깅 하기
2	아버지의 남성	태우기 예식	아내에게 편지쓰기 자녀가 사랑스런 20가지 이유쓰기
3	아버지의 사명	촛불 예식	아내가 사랑스런 20가지 이유쓰기
4	아버지의 영성	성찬식	간증문 써오기
5	아버지와 가정	세족식, 순결서약, 수료식	

한편, 두란노 어머니학교의 교육내용은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문제점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진다. 박차실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자존감 증진, 아버지의 역할 수행도 증진, 그리고 가정생활 만족도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⁸⁷⁾ 또한 노연실은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아버지학교 수료전과 수료 후를 비교할 때 아버지 역할증진, 포용력, 가족 간의 상호 존중감, 가족 간의 친밀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보고한다.⁸⁸⁾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신학적인 기초가 부실한 면이 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재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력"을 보면 교제에 문제가 되는 가계저주론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언어들을 사용하며 그들의 주장과 비슷한 면들이 보여 진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은 한 세대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87) 박차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아버지역할 증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원, 1999); 장상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52에서 재인용.

88) 노연실,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1, 장상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53에서 재인용.

악한 영향은 자자손손 대물림을 합니다. 전혀 새롭거나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중략).....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한 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 한 세대의 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아버지의 영향력을 자자손손에게 대를 이어 내려간다는 것을, 모든 아버지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⁸⁹⁾

또한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교재들 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은 후손 4대 이상까지 영향을 미침(Dave Simmons),"⁹⁰⁾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가족은 자손 대대로 같은 문제들 150년 동안 계속해서 안고 간다"⁹¹⁾ 라는 것 등을 보아 가계저주론과 맥을 같이하는 면이 있음을 발견한다.

또한 아버지의 4대 기능으로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그리고 파송하기"를 들고 있고,⁹²⁾ 아버지의 영적 권세를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 전수권"으로 나누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한다.⁹³⁾ 이는 성경과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만의 기능과 영적 권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신학적 기반이 부실한 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신학적인 일관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필자가 뉴욕/뉴저지 제2회 목회자 아버지 학교(2007년 8월 6-7일까지)에 참석해서 발견한 것은, 강사들의 강의내용은 "유교전통의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버리라"는 것으로 일괄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 하나님의 대리자(혹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무릎 꿇여 놓고 축복 기도하라는 숙제를 내 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아내를 초청해서 아내의 발을 씻게 하는 "세족식"을 거행함으로 아내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실천하게 하여 교육을 마무리 짓는다. 이는 신학적인 일관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셋째, 성경적인 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는 것이 설립 목적 중에 하나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버지의 4대 기능-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아버지의 영적 권세-축복권, 말씀권,

89)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101-102.

90) Ibid. 47.

91) 장상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58.

92)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29-30.

93) Ibid. 132-133.

훈육권, 신앙전수권",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등의 주장은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6년에 발행된 교재에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신 지도자이며, 제사장이며, 목자임을 가르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⁹⁴⁾ 라고 말하지만, 이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서 나온 발상으로 여겨지며, 김세윤이 지적한대로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신약의 진리인 "만인제사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⁹⁵⁾

넷째,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교회연합운동임을 천명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 운동에 대한 목회적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수료자들 가운데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해서 차기 교육시 봉사하도록 개별적으로 요구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 교회들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목회적 부담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는 필자가 수원의 평안교회 J 목사와의 인터뷰(2007년 11월 18일 주일)와 미국 남부 뉴저지 교회협의회 목회자들과의 토론(2007년 4월 17일 화요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지역 교회(Local Church)가 아니라 일종의 파라 처치(Para-Church) 운동으로 볼 때 교회연합운동의 주체가 되기에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이와 같은 운영방법이 일부 목회자들에게 목회적 부담을 주는 실정이므로 오히려 교회 연합운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두란노 어머니학교의 문제점은 성경의 몇 구절을 내세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⁹⁶⁾

2. 하이 패밀리(Hi-family) - 송길원

가. 설립목적과 사업

하이 패밀리 홈페이지(<http://www.hifamily.net/>)에 의하면, 하이 패밀리는 1992년 송길원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가 2003년부터 하이 패밀리로 명칭

94)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8.

95)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53-55.

96)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53-54.

을 개칭해서 사용하는 이름이다. 설립목적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며, 가정을 창조질서의 원리에 따라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으로 회복시키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선교문화센터로서 해피 랜드(Happy-land)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하이 패밀리에는 아버지 회복운동, 장례문화 변혁운동, 녹색가정회복운동, 가정사역위원회 설치 캠페인, 결혼 다이어트 운동, 가족사랑 캘린더 보급, 가족사랑 찬송가 보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현재 하이 패밀리에서는 행복 플러스 해피나(하이 패밀리에 의하면 "해피나"는 happiness + seminar 의 합성어라고 함), 브라보 스쿨(아버지학교), 아내 행복교실 The Eve, 싱글병글 & 연리지(결혼 예비학교), 부부 성장학교(초급, 중급), 천국준비교실, The Third Age(중년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 부모교육, 유머학교, 고부학교, 기대관리 워크숍, Grand Parenting 등 2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이 패밀리가 운영하는 가정사역 평생교육원에서는 2년제 가정사역 전공과 상담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7년 하반기 팜프렛(Pamphlet)을 보면 "주례 세미나", "KBS 방송인들과 함께하는 목회자 무료 Speech 해피나", "사모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축제 Loving You 해피나", "크리스찬 싱글들을 위한 싱글병글 해피나", "크리스찬 여성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 축제 Loving You 해피나", "크리스찬 여성들을 위한 춤 치료 해피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3월에 개정된 결혼예비학교(연리지)의 교육내용은 하나님의 결혼설제도, 자아상, 차이, 성인아이, 신혼설계 등 다섯 Session으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 판 아버지학교(브라보 스쿨) 교재는 아버지-그 새로운 이름, 아버지-사랑의 창, 참으로 좋은 아버지, 최고의 선물-부부사랑, 아버지-축복의 원천, 갈무리 등 여섯 과정으로 구성 되어있다.

아내 행복교실(완전한 사랑) 교재는 돕는 배필의 일곱 가지 선언, 남편 바로보기, 쓴 마음의 치유, 관계건축가로서의 아내, 꿈이 있는 가정꾸미기 등 다섯 과정으로 구성 되었다.

부부 성장학교 워크북(이제 행복을 말하자)은 총 12개 과정으로 되어있는데, 이제-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정-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애정과 존경-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입니다. 차이-다들 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아상-건강해야 합니다. 대화-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됩니다. 성(性)-성공(性功)하고 사셔야죠. 자녀-베풀기입니다. 돈-부자 되세요. 부부싸움-잘하고 삽시다. 예배-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우리가 세워야합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문제점

하이 패밀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미등록 된 자에게는 자료획득에 제한이 있었고, 결혼 예비학교(연리지), 아버지학교(브라보스쿨), 아내 행복교실(완전한 사랑)의 교재들과 부부성장 워크북은 요점만 정리되었기 때문에 교육과 강의 내용을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송길원/김향숙의 저서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다.

첫째, 신학적 기초가 부실한 면이 있다. 송길원은 "나대로 믿어지는 사도 바울의 여성관은 이렇다. 남녀는 인격적인 동질성의 관계요, 근원적인 동질성의 관계요,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일체성의 관계요, 창조 목적상으로 기능적인 차별성의 관계이며, 문화 창조의 사명수임에서는 문화 창조의 파트너 관계로 나타난다."고 말한다.⁹⁷⁾ 즉, 그는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기능과 역할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의 헤드쉽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세윤은 "남녀는 본질적으로 또는 구원론적으로는 동등하나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함으로 이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언어의 유희에 불과 합니다"⁹⁸⁾라고 일축한다. 따라서 남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송길원의 주장은 신학적 기초의 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경적 기초가 부실하며 가부장적인 면이 강하다. 송길원이 "남편의 머리됨은 유교적 풍습이나 가부장적인 문화의 소산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⁹⁹⁾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히려 성경적 기초가

97) 송길원 김향숙, *송길원 부부의 꿈꾸는 스위트 홈*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2004), 127.

98)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73.

99) 송길원, *가족사랑 길라잡이* (서울: 도처출판 기가연, 2000), 40.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가장(가정에서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은 영적인 식탁을 준비하는 일에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¹⁰⁰⁾고 말하며, 아버지 학교 교재 끝에 보면 "아들과 함께 나누는 아침"이라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아파들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니? 네....."¹⁰¹⁾라고 진술함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은연중에 표현한다. 김향숙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사장직을 포기한 채 헤메고 있는 못 남성들을 향해 지금도 물어 오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¹⁰²⁾라고 말함으로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송길원은 아내에게 "남편을 하늘(天)이 아니라 하늘이상(夫)으로 모셔라",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고 주문한다.¹⁰³⁾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들로 볼 때 성경적인 기초가 부실하며 가부장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자신의 부정적인 행위가 조상들로부터 전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길원은 "오늘날 나의 부정적 행위는 나의 부모, 조부모,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나의 조상들에서부터 전래한 악습은 물론 특히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처나..."¹⁰⁴⁾라고 말함으로 가계저주론자들의 주장을 방불케 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하이 패밀리(송길원)는 신학적 기초가 결여되어있고, 성경적 기초가 부실함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으며, 가부장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3. 한국가정상담연구소 - 추부길

가. 설립목적과 사업

한국가정상담연구소 홈페이지(<http://www.kofam.org/>)에 의하면, 2005년부터 한국가정사역연구소가 한국가정상담연구소로 개칭, 가정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 사명을 두고 한국교회에 가정사역과 가정목회를 도입, 기독교적인 가정문화를 보급하는데 힘써왔다. 한국가정상담연구소는 전문 가정사역자의 발굴, 전인적 치유를 위한 치유센터 건립과 전문 가정상담 사역자의 배출, 성경적 상담

100) 송길원, *이제 행복을 말하자* (서울: 도처출판 해피홈, 2007), 88.

101) 송길원, *브라보 스쿨* (서울: 도서출판 해피 홈, 2007), 60.

102) 송길원 김향숙, *송길원 부부의 꿈꾸는 스위트 홈*, 80.

103) 송길원, *이제 행복을 말하자*, 103.

104) Ibid. 228.

사역 전문기관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열방까지 확대해 넓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말한다.

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한국가정상담연구소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공동으로 가정상담 목회학과 및 가정상담 전문과정이 있고, 웰빙 카운슬러과정, 단기가정상담학교, 부부행복학교, 결혼준비학교, 임신과 출산학교 지도자 과정,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가정과 상담 축제, 부부행복축제, 실버사역학교, 이혼 ▴ 재혼자 학교, 싱글사역학교, 10 & 40(부모와 자녀학교), 웰빙 목회자 클럽, 행복한 사모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가정행복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하나님 의 가정설계, 부부의 사랑 만들기, 남녀의 차이와 부부역할, 부부와 의사소통, 부부와 건전한 자아상, 갈등과 가정의 위기, 부부와 성, 부부와 경제생활, 부부와 자녀교육, 가정과 영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⁵⁾

중장기 소그룹 워크샵의 교육내용은 12주 과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설계, 가정과 사랑, 가정과 대화, 남녀의 차이와 부부역할, 가정과 건전한 자아상, 갈등과 가정의 위기, 갈등과 부부싸움, 가정과 성, 가정과 경제생활, 부모와 가정, 가정과 자녀교육, 가정과 자녀양육, 가정과 영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⁶⁾

또한 결혼예비학교의 교육내용을 보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나의 자아상, 결혼과 가족, 결혼과 대화, 결혼과 사랑, 결혼과 부부역할, 결혼과 성, 결혼과 신혼설계 등으로 구성 된다.¹⁰⁷⁾

다. 문제점

한국 가정상담연구소는 가정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교회가 직접 적용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많은 자료와 매뉴얼을 비교적 잘 제공해 주고 있는 기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의내용은 제목 외에 제시되지 않아 교육내용 분석에 용의하지 않다. 따라서 추부길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105) 추부길, 김정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0), 46-57.

106) Ibid. 62.

107) Ibid. 242.

첫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색채가 농후하며, 신학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는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가 살아 역사 한다"고 개탄한다.¹⁰⁸⁾ 이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권위주의가 팽배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를 옹호 하고 있다.¹⁰⁹⁾

상당을 하다보면 남편의 머리됨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역기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게 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단지 아버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사회의 법질서 같은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리고 추부길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다 받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이나 대표는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¹¹⁰⁾ 남편이요 아버지의 권위를 한껏 부추기고 있다.

또한 그는 "특별히 아내라는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ezer"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호혜적(互惠的)관계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¹¹¹⁾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서는 "남자들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고 주장함으로¹¹²⁾ 남녀가 호혜적 관계가 아닌 것으로 금방 뒤집어 버린다.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주장은 가부장적이며, 신학적인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학적 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보여 진다. 추부길은 "물론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남편에게는 머리됨의 역할을 주셨다"고 주장한다.¹¹³⁾ 이러한 논리에 대해 김세윤은 다음

108)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한국가정사역 연구소, 2005), 36.

109) Ibid. 94.

110) Ibid. 94.

111) Ibid. 90.

112) Ibid. 91.

113) Ibid. 91.

과 같이 말한다.¹¹⁴⁾

"역할 차이"론으로 한 편이 실제로 이익을 보고 다른 한 편이 손해들 보는데, 어떻게 그 이론이 남녀동등의 원칙에 합치한 것입니까? 우습다 못하여 슬프기까지 한 상황이 너무 많은(특히 기초 교육이 약한 한국의) 남자들이 기득권에 눈이 멀어 성경의 가르침은 말 할 것도 없고 언어와 기본 논리조차 비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부길은 가정의 질서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었다."¹¹⁵⁾라고 말한다. 그는 또 "부부는 동등하다. 그리고 아내는 결코 남편에 대해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으나 하나님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¹¹⁶⁾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위계질서와 아내의 복종 기능의 개념을 삼위일체적 신론으로 유비하여 정당화 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그러나 김세윤은 삼위일체적 신론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절한 유비들 제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¹⁷⁾

삼위일체적 신론의 기본 의미는 초월하시며 동시에 내재하시는 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방법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초월하시는 성부가 성자들 이 세상으로 "보내심"(sending, commissioning)으로 성자가 성부들 이 세상에 제시하시고 성부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부가 성자들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성자 안에 이루어진 성부의 제시와 구원을 실재화(또는 효력이 발생하게 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관계는 "보내심"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보내심"받은 성자는 "보내신"성부께 순종하여(성부의 뜻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켜) 성부들 제시하고 성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자의 내재의 존재방식이 아닌 부부관계에, 남편은 "보내고" 아내는 "보냄을 받은"구조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부관계에 삼위일체론적 관계들 유비로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부길은 결혼에 있어서 부모를 떠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114)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74-75.

115) 추부길, *Family Ministry*, 94.

116) Ibid. 97.

117) 김세윤, *하나님 만드신 여성*, 75-76.

같이 말한다.¹¹⁸⁾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에서 역할을 하였지만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다. 즉, 축복권과 말씀권, 신앙전수권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는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거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에 유비하는 시도, 그리고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주장, 아버지가 축복권, 말씀권, 신앙전수권이 있다는 주장 등은 성경적 ▪ 신학적 기초의 부실에서 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한국가정상담연구소(추부길)은 권위주의적 기초 위에서 신학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학적 기초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4.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 - 이희범

가. 설립목적과 사업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 홈페이지(<http://www.jigawon.com/>)에 의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는 목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비로움과 행복을 지켜가게 하는 목회가 필요한 시대임을 자각하고 가정사역의 절대적인 필요와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6월에 이희범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구촌 가정훈련원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을 회복하는 일과 교회의 "기본터"인 가정을 치유하여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 나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힘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다. 지구촌 가정훈련원은 부부행복학교 워크숍 프로그램, 가정사역 지도자훈련, 부부영성훈련 및 내적치유, 국내외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 그리고 교회들과 캠퍼스사역, 목회자부부세미나, 국내외 목사 핏볼회, 극동방송과 기독교TV 등의 사역들을 해왔다.

118) 추부길, *Family Ministry*, 99-100.

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부부행복학교의 특징은 첫째, 리더의 가정에서 모이고, 둘째, "식탁의 교제"로 마음과 마음을 열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며, 셋째, 찬양과 기도로 마음 문을 열며, 넷째, "주제 강의"는 상담기법으로 본다면 "비지시적 상담"의 효과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섯째, "독후감 나눔"(book therapy)은 팀원이 책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섯째, "삶의 나눔"시간은 당일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 및 부부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며, 일곱째, "마무리기도"와 "결단"으로 6개월 워크샵 과정을 마친다. 교육내용은 우리가정 공사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초적 가정, 말이 안 통한다구요, 당신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 갈등하고 있습니까? 알고 보니 나도 괜찮은 사람이네요! 베짖이와 자린고비, 서로 만지고 살자구요! 당신과 사랑하고 싶어져요, 자녀! 내 맘대로 안돼요, 가정사역 이래서 중요합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예비학교의 교육내용은 "결혼의 원리 : 결혼은 무엇인가?, 나와 배우자의 성격분석 (이교그램), 대화기법, 聖스러운 性, 부자학 (가정경제), 남녀차이"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문제점

이희범의 부부행복학교의 교재를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창조 때에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불평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영적, 인격적, 도덕적, 존재론적으로도 전적으로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갈3:28).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신분에서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나 기능과 역할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엡5:21).¹¹⁹⁾

119) 이희범, *부부행복학교* (서울: 지구촌 가정훈련원, 2004), 70.

또한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하이 패밀리, 한국가정상담연구소 등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며, 가정의 목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희범은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분명 그 교회의 목회자는 부모일 것이고 또 가정이 학교라면 그 학교의 교사도 역시 부모일 것이다"라고 가르치므로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가 영적인 책임자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희범에게서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내들아! 남편은 家長이다.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 남편에 대한 존경과 격려는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¹²⁰⁾ "여자는 남자들 위해, 남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¹²¹⁾ "의논하되 결정은 남편이 하게 하라",¹²²⁾ "여자는 남자들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고...(창 2:20-23)",¹²³⁾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은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하는 것",¹²⁴⁾ "갈등해결의 주도권은 남편이 잡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¹²⁵⁾ 등이다.

이와 같이 남녀평등과 남성우월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이희범)의 견해는 신학적인 일관성 결여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성도들의 영적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된다.

5. 쉐마 교육 연구원 - 현용수

쉐마 교육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¹²⁶⁾ 다만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간이해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현용수는 "성서에 의하면 아버지는 사상과 권위와 힘의 상징이다. 유대인 선생은 상당한 권위를 가진 자이며,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다. 어머니는 사랑, 정서, 그리고 눈물의 상징이다"¹²⁷⁾라고 주장하는데, 성경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호하며, 특

120) 이희범, *부부행복학교*, 25.

121) Ibid. 41.

122) Ibid. 48.

123) Ibid. 70.

124) Ibid. 79.

125) Ibid. 93.

126) 쉐마 교육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emaiqeq.com>)는 2007년 12월 10일 현재 구성되지 않았으며 업그레이드 중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만 볼 수 있음.

히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라고 주장함을 보아 그의 인간이해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유대교적인 것이 곧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본다. 현용수의 저서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2,3)" 과 "유대인의 인성교육 노하우(1,2,3)"의 내용들을 보면 그는 유대교적인 것이 곧 성경적인 것이라는 시각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성서적 가정을 구조적인 면에서 고찰하면 아버지는 사상, 힘, 권위의 상징이며, 어머니는 사랑, 정서, 동정(눈물)의 상징이다. 그리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말한다.¹²⁸⁾ 다른 곳을 보면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고, 정서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다....."¹²⁹⁾라고 말한다. 이는 곧, 유대교적인 것이 곧 성경적이라는 이야기고, 그런 그의 시각이 문제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용수의 주장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이라고 여겨진다. 현용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이어 저자는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고전11:3), 아내는 머리인 남편을 통하여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녀들에게 사용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변하기 시작한다. 변함의 첫 징조는 순종이다. 진정한 순종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나온다. 이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질서가 회복된다.¹³⁰⁾

전통적인 한국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도 유대인 아버지의 역할과 비슷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그 결과는 도덕과 윤리의 파괴이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가 세워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중략)....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다.¹³¹⁾

127)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 205-206.

128)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서울: 도서출판 웨마, 1996), 50.

129)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 257.

130)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248.

131) Ibid. 55.

현용수의 주장대로 유대교전통과 유교전통은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유교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인들은 유대교 전통이 곧 성경적이라는 주장에 쉽게 동의하고 동조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권위적인 것"이 곧 "보수적인 것"이라고 보는 그의 시각도 문제라고 본다. 현용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³²⁾

랍비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유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다. 그 학교는 보수파에 속하는데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반반 정도였다. 여성은 랍비가 될 수 없을 텐데 왜 여성들이 많냐고 물었다. 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졸업할 때면 개혁파 회당에 여성 랍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성의 입장이 회당 내에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번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한참 자기 네끼리 얘기하다가 저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저자는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을 얘기하고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우리에게 준 훈계들 얘기해 주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의문이 생기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조용히 들던 여학생들이 갑자기 "노 웨이!(No way: 어렵도 없지요)"라고 웃으며 합창하였다. 그래도 보수계 한국인 목사님들은 모두 성경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해 주었다.

이와 같이 "보수계 한국목사들은 모두 성경을 따라서....."라는 것을 보면 권위적인 것이 곧 보수라고 보는 시각을 그는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성경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용수가 성경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 하나님은 어지러운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실 때는 반드시 머리를 통하여 내리신다. 이들 신학적인 용어로 '머리의 권위(Headship)'라고 부른다.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의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내리실 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들 통하여 내리신다.¹³³⁾

132)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 88.

13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240.

설사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흠뻑히 하더라도 아버지의 손길
이 야곱의 머리에 닿음에 따라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렸다.
즉,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무조건 아버지의 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진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전임하셨기 때문이다. 이
러한 영적 권한은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이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¹³⁴⁾

구약성경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여성은 인구 조사에서도 제
외 된다."¹³⁵⁾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실 때 머리를 통하여 내리신다. 머리는 질서
를 위한 직분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요, 부모는 자녀의 머리이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듯이, 가정에서 머리인 남편을
통하지 않고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원리로
머리인 부모를 통하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
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¹³⁶⁾

그렇다면 남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내는 남편
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는가? 여성은 이 문제를 성경적인 방법
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방법은 설사 남편이 그럴지라도 여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한쪽이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똑같이
불법을 행하면 가정은 파괴된다.(중략)..... 둘째, 남편은 아
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억울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¹³⁷⁾

이와 같이 현용수는 인간 이해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유대교적인 것이 곧 성경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문제며, 가부장적이고,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4)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242.

135) Ibid. 369.

136)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3)*, (서울: 도서출판 웨마, 1996), 182.

137) Ibid. 184-185.

제2절 한국교회 가정사역 실태와 문제점

여기서는 비교적 가정사역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의 가정사역 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의도 순복음교회 - 이영훈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영성훈련원 산하에 가정사역 파트가 있고, 가정사역 파트에는 좋은 어머니교실, 부부세미나, 그리고 아버지학교가 있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부부세미나 교재의 교육내용은 부부생활의 원리, 부부대화, 부부 기질과 자아상, 인간이해와 부부의 차이, 통합적 치유와 행복한 가정, 내적치유, 부부의 성(性), 부부 행복작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은 소그룹 별 저녁식사, 찬양, 주제 강의, 소그룹 나눔, 그리고 중보기도/마무리로 매회 진행된다.

아버지학교(Father's Dream)의 교육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남성 문화,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 아버지의 꿈, 그리고 아버지와 가정으로 구성된다.

어머니학교(Mother's Dream)의 교육내용은, 여성-나는 나를 좋아한다, 아내의 맘/남편의 맘, 어머니의 꿈과 기도, 십자가의 꿈,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로 구성된다.

다. 문제점

첫째, 여성을 보는 시각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순복음 영성훈련원에서 발행한 "제 7기 부부세미나 교재"에 의하면, 여성의 주체성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음", "아담의 일부로 지음을 받음", "남편의 사역을 조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는 능력을 부여받음", "남자의 지도력을 복종함으로 자유의지들 통제할 책임을 지님", "남성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여자" 등으로¹³⁸⁾ 여성을 이해

138)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세미나 교재* (서울: 순복음 영성훈련원, 2007), 105.

하고 있어 여성을 보는 신학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둘째, 남편의 헤드쉽을 강조한다. 남편의 헤드쉽을 강조하는 예를 들면, "남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른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는 목자", "아버지는 가정의 제단의 제사장",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라고 말한다.¹³⁹⁾ "남편으로서 머리의 기능, 아버지로서 가정의 목자 된 신분....."¹⁴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듯이 아버지는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목자입니다."¹⁴¹⁾,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축복해주는 통로여야 합니다."¹⁴²⁾ 등이다.

셋째, 가계저주론의 주장과 매우 근접한 주장을 한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선함역시 아버지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간에 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원한다면 우선 내가 받은 잘못된 영향력을 내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¹⁴³⁾

이처럼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 받은 좋은 영향력은 계승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은 내 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어느 가문에 항상 좋은 것만 있었겠는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자는 말입니다.¹⁴⁴⁾

데이브 시몬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 세대의 악한 영향은 적어도 그 자손 사대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 만약 그 악의 줄을 끊지 않으면....." 아버지의 악한 영향은 한 세대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은 자자손손 대물림을 합니다. 전혀 새롭거나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아닙니다"는 "아닙니다"의 오자(誤字)로 여겨짐: 필자의 견해).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¹⁴⁵⁾

139) "행복한 가정 만들기," 123-127.

140) "주님! 제가 꿈을 이룬 아버지입니다." *Father's Dream 교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 평신도훈련소, 2007), 49.

141) Ibid. 50.

142) Ibid. 57.

143) Ibid. 8.

144) Ibid. 9.

그러나 2007년 11월 2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에서 필자의 인터뷰에 응한 Y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 '가계 저주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체 내에서도 "가계 저주론"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학적 기초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 Father's Dream 교재, "주님, 제가 꿈을 이룬 아버지입니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실로 놀랄만하다.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는 최고의 물질문명과 고도의 과학 문화를 자랑하는 지금도 귀한 것이요, 좋은 것이요,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과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남성의 관계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신분은 확실히 자랑하고도 남을 만하며 그 귀함을 인정받고도 남을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좋고 기쁘고 값진 것입니다.¹⁴⁵⁾

또한 아버지의 4대 기능으로 "결속하기 기능", "사랑하기 기능", "인도하기 기능", "파송하기"로¹⁴⁷⁾, 아버지의 영적권세로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전수권"으로 제시한다.¹⁴⁸⁾ 이는 아버지만의 기능이나 권세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히 아버지의 영적권세 중에 말씀권이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교회의 목회자다", "만인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가정이 바로 사역의 중심지임을 깨닫고 순종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¹⁴⁹⁾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만 만인제사장"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은 신학적 기초가 결여된 것으로 본다.

145) "주님! 제가 꿈을 이룬 아버지입니다." 48.

146) Ibid. 48.

147) Ibid. 11-13.

148) Ibid. 76-77.

149) Ibid. 76.

2. 지구촌교회 - 이동원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지구촌교회는 치유와 복지 파트에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프로그램과 교육내용

지구촌 새 가정 훈련학교 교재에 실린 가정사역체계도에 의하면, 가정사역은 1998년부터 시작된 "새 가정 훈련학교"(기본과정)가 있고, 결혼예비학교, 싱글학교, 교부학교, 성교육학교,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자녀양육학교, 태교 교육학교, 노인학교, 대화학교, 이혼치유학교, 재혼적응학교 등이 있다.¹⁵⁰⁾

위와 같이 지구촌교회는 여러 가지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있으나 새가정 훈련학교 교재 외에 다른 자료들 입수할 수 없었다. 새 가정 훈련학교의 교육내용은 성서적 가정관, 창조적 자아상 성서적 부부생활, 성서적 자녀양육, 창조적 대화생활, 창조적 성생활, 성서적 교부관계, 창조적 중년기와 노년기, 가정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촌교회 "새가정 훈련학교 교재" 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천선은 이동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⁵¹⁾

이 목사는 상호복종을 강조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이(남편에게: 필자의 견해) 더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만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해석은 아내의 존재는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비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과 다름 것이 없다.

이어 이천선은 "현재 목회자 중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상호평등을 강조하는 목회자이나 그는 에베소서 5:21을 통해서 남편의 리더십과 함께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²⁾ 따라서 여기서 이동원의 남녀관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150) 지구촌교회, *지구촌 새가정 훈련학교 교재*, 56.

151) 이천선, "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100.

152) Ibid. 99.

3. 영락교회 - 이철신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영락교회 가정사역체제도에 의하면, 아가세 세미나(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세미나), 경가세 세미나(경건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출산 및 양육 세미나, 유아 교육 세미나, 사춘기 자녀/부모교육 세미나, 아름다운 중년, 갈렙(노년)교실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2007년 9월 11일, 영락교회에서 상담부 K 목사와의 인터뷰 결과, 체제도 상으로는 위와 같지만, 실제로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사역은 "결혼준비 교육"뿐이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이 교회에서 발행해서 사용하는 결혼 준비학교 교재의 교육내용은 성경적 가정의 원리, 대화와 갈등해소, 결혼과 자아상의 치유, 결혼과 성, 아이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결혼의 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회에서 사용 중인 "결혼준비교육 교재"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

4. 광림교회 - 김정석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필자가 2007년 9월 10일 광림교회를 방문하여 청장년부 J 간사와 한, 인터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광림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림교회의 가정사역은 청장년부가 주관이 되어 결혼예비학교, 젊은 부부학교, 임신 태교학교, 자녀 교육학교, 아름다운 가정세우기 세미나(여름/겨울 수련회) 등으로 나누어진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2007년에 실시한 제 4회 결혼예비학교의 교육내용은 결혼의 성경적 원리, 결혼

과 나의 자아상,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대화법, 부부-그 아름다운 성, 임신과 태교, 남녀의 차이와 역할로 구성되어 있고, 정동섭, 변상규, 김향숙, 이세일, 최명순, 송길원 등 주로 외부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했다.

제8회 젊은 부부학교는 2007년 5월 12일(토)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에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가정-하나님의 결작품, 기적을 부르는 사랑의 대화법, 부모-그 고귀한 부르심, 차이와 조화-DISC, 결혼과 부부 자아상으로 구성되어있고, 변상규, 이영애, 김향숙, 임석환, 박병은 등으로 주로 외부강사들이 강의했다.

2007년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아가세)는 30대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2007년 3월 10-11일(1박 2일 동안)에 실시했으며, 애정과 존경심으로, 성인아이-참 사랑의 여정, 변화 그 황홀한 감동 등의 교육내용을 송길원/김향숙이 강의했고, 부부산책, 춤을 통한 부부의 특별한 대화, 부부편지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광림교회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강사들에 의해서 강의되었기 때문에 교육내용에 대한 분석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나 신학적인 기초가 결여되었거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가부장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외부강사들을 분별하지 않고 초청하는 문제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주안장로교회 - 나결일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주안장로교회 가정사역국 홈페이지(<http://home.juan.or.kr/>)와 가정사역국 팜플렛(Pamphlet)에 따르면, 가정사역국에서는 "예방적인 가정사역", "치료적인 가정사역", "영성회복을 돕는 가정사역", "공동체의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정사역국을 총괄하는 목사가 있고, 아담 아버지학교와 이브 어머니학교, 행복한 부부학교에는 별도의 목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조직적으로 가정사역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교회 중의 하나로 보여 진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주안장로교회 가정사역은 아담 아버지학교, 이브 어머니학교, 행복한 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청년부부모임 등으로 운영된다. 아담 아버지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이브 어머니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여성이 된 기쁨,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의 영성, 십자가와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한 부부학교의 교육내용은 부부대화법(정동섭), 부부싸움과 갈등해소(이희범), 부부와 성(추부길), 부부의 역할과 사명(박병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 예비학교의 교육내용은 결혼을 향한 나의준비(나희수), 결혼의 영적의미(김재휘), 마음을 합하기 & 차이를 넘는 아름다운 의사소통(노성동), 첫날밤의性と聖(나희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희범)로 구성되어 있다.

다. 문제점

주안장로교회는 가정사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정사역을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라고 판단된다. 어머니학교, 행복한 부부학교, 결혼 예비학교의 교재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아담 아버지학교의 교재를 보면 "아버지!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당신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임재 하여 계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빠듯하지 않습니까?"¹⁵³⁾ 라고 말함으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아버지들 통해 하나님이 가정에 임재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아버지의 영적권세들 축복권, 말씀권, 훈육권, 신앙전수권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¹⁵⁴⁾ 이는 아버지만의 권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신학적 기초의 부실로 보인다.

6. 안산동산교회 - 김인중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안산동산교회 홈페이지(<http://www.d21.org/>)에 의하면 사회 복지국 내에 "동산

153) 주안장로교회 가정사역국,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72.

154) Ibid. 74-75.

가정상담실"이 있어 가정사역을 총괄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동산가정상담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는 가정사역학교(결혼과 가정), 행복한 부부학교, 결혼 준비교실, 자녀교육과 의사소통 등이 있다.

가정사역학교(결혼과 가정)의 교육내용은 가정사역에의 요청과 그 필요, 결혼과 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MBTI 성격유형검사, MBTI를 통한 성격이해, 부부의 성,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정 경제, 자녀지도와 교회생활, 행복한 가정을 건축하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명의 강사에 의해서 강의 된다.

결혼예비학교의 교육내용은 결혼의 성경적 원리, 결혼과 자아상, 결혼의 실제적 현실, 의사소통의 방법, 결혼과 성/성과 임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한 부부세미나의 교육내용은 부부의 차이, 행복한 부부의 의사소통법, 성(性)- 그 성(聖)스러운 하나님의 선물, 친밀한 부부: 그 사랑의 대화, MBTI를 통한 부부이해과 수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교육과 의사소통의 교육내용은 사랑, 훈계,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태도, 자녀의 특성과 학습지도, 건강한 부모교육1, 건강한 부모교육2, 자녀교육, 자녀와의 갈등 해소, 자녀교육과 의사소통1, 자녀교육과 의사소통2, 자아상 회복/ 떠나보냄, 자녀교육과 의사소통3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재순 사모(동산 가정상담실 실장) 및 나희수 등 주로 외래 강사들에 의해서 강의된다.

다. 문제점

동산가정상담실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가정사역학교(결혼과 가정)의 강의안 중 "남편과 아내의 역할"(한은경: 두란노 어머니학교 본부장)에서 아내의 사명이 "남편의 머리됨에 순종하는 것"이라고¹⁵⁵⁾ 말함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안산동산교회의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교재에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지나, 교회의 신학적 입장

155) "결혼과 가정," *가정사역학교 교재* (서울: 동산 가정상담실, 2007), 30.

과 일치하는 외부강사들 초청하는 사례 깊음이 요구된다고 본다.

7. 온누리교회 - 하용조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2007년 9월 11일 필자와 가정사역 본부장 K목사와의 인터뷰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http://www.onnuri.or.kr/>)에 의하면, 온누리교회는 부부의 연령별로 다양한 가정사역학교와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이 교회에 특이한 것은 교육수료 후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수료생의 조별, 기별 자체모임을 갖고 삶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나누게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교육의 효과들 증대시키고 있고, 가정사역학교 수료생들 가운데 가정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가정, 전문가정사역자로서 비전을 품은 가정들을 활용해서 가정사역에 헌신/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온누리교회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젊은 부부학교"(30-39세),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40-65세 대상), 모세 대학(65세 이상), "여성 이혼자 치유학교", "여성 사별자 모임", 이혼한 남성들을 위한 "Good Life",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임신을 기다리는 부부들을 위한 "출산 사역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이혼자 치유학교, 여성 사별자 모임, Good Life 등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바, 이는 개인적인 기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진다.

젊은 부부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원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부대화, 자녀교육, 내적치유 및 가정경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의 교육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내적치유", "부부 생활", "대화", "자녀양육", "공동체 훈련",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헌신"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주제에 따라 강의, WORKSHOP, 간증과 조별 나눔을 통하여 삶의 실제적 현장 가운데서 가정생활의 성경적 원리들 찾게 한다.

출산 사역팀은 2003년 1회의 활동이 있었고, 교육내용은 "예비 엄마 아빠는 서로들 얼마나 아시나요?", "부부대화", "임신 체조법", "성경적 태아교육", "분만교실",

"출산 후 유아 관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온누리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외에 입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학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어머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함으로 여기서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천선에 의하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는 남자의 머리됨과 여자의 복종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설교자로 알려졌거니와¹⁵⁶⁾,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므로 온누리교회(하용조)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할렐루야 교회 - 김상복

가. 가정사역 조직 및 실태

할렐루야교회의 홈페이지(<http://www.hcc.or.kr/>)에 의하면, 가정사역은 상담아카데미 및 성경대학에서 1년에 몇 개 과목씩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상설기구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늘푸른 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나. 프로그램 및 교육내용

할렐루야 교회에서 상설 운영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인 늘푸른 대학(노인대학)의 교육내용은 사회변화와 적응/봉사에 대한 교육, 가정과 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과 인간관계, 노년기의 건강관리, 신앙과 생활교육, 친교/음악/오락/전학/소풍/여행/어버이날 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저명한 인사 및 교수,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한다.

다. 문제점.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목사에 의해서 출간된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화목한 가정생활 가꾸기"는 평신도 목회연구원에서 1993년에 실시한 교육내용을 출간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56) 이천선, "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94-95.

특히, 김상복의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에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는 본래부터 협력자(Helper)로 창조되었습니다. 현대 여성 운동에서는 여성 자체가 독립된 존재로서 남자와 동일한 존재로, 또는 남자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자는 스스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¹⁵⁷⁾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¹⁵⁸⁾

"남편 ▪ 아버지 - 가장. 가장은 가정의 행정적 책임자다. 가장은 사랑의 주도자다. 가장은 가정의 영적 주도권을 가진 제사장이다. 가장은 가정의 경제의 책임자다."¹⁵⁹⁾

"아내 ▪ 어머니 - 순종.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협력자요 가까운 친구다."¹⁶⁰⁾ "아내는 남편의 협력자이며 자녀들의 제2의 책임자이다."¹⁶¹⁾ "그런데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경우 가정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대들 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¹⁶²⁾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동등합니다. 가치나 권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¹⁶³⁾ "가장이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 있는 역할입니다."¹⁶⁴⁾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 - 남편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사람입니다."¹⁶⁵⁾

157) 김상복,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42.

158) Ibid. 44.

159) Ibid. 63-65.

160) Ibid. 67.

161) Ibid. 76.

162) Ibid. 77.

163) Ibid. 79.

164) Ibid. 96.

165) Ibid. 131.

"하나님께서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였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며 협력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습니다."¹⁶⁶⁾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남성과 여성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을 주장하고, 가정의 질서를 내세워 남자의 헤드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2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은 그의 입장이 가부장적이며 신학적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의 문제들

여기서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 어머니 학교, 하이 패밀리(송길원), 한국가정상담연구소(추부길), 지구촌 가정사역 훈련원(이희범), 웨마 교육연구원(현용수)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사역 기관들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지구촌교회(이동원), 영락교회(이철신), 광림교회(김정석), 주안장로교회(나겸일), 안산동산교회(김인중), 온누리교회(하용조), 할렐루야교회(김상복) 등 비교적 가정사역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회들의 가정사역 조직과 실태, 그리고 교육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발견한 문제점을 종합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기독교는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 기초가 부실하다. 가정사역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 실시되어야 하나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다(특히 웨마 교육연구원: 현용수). 예수님도 성경의 진의를 버리고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경적이라고 내세우는 주장들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예들이 많았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가정사역은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기관들과 교회들이 교제에 한때 문제로 대두된(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가계저주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 남녀관계들 보는 성경적 • 신학적 관점이 올바르지 못한 것, 성경해석의 오류를 범하

166) 김상복,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143.

고 있는 것 등은 신학적인 기초가 부실한 증거로 보여 진다.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 기초 부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신학교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기초학문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본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각 신학교(M.Div.과정)의 교과과정 가운데 가정사역에 대한 과목개설이 지극히 미미했다.¹⁶⁷⁾ 특히 가정사역 기관들의 교재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한국교회들이 그대로 표절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정사역 기관들의 신학적 기초 부실 문제는 하루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은 신학적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필자가 조사 분석한 대부분의 가정사역 기관들과 교회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보면,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고, 금방 몰아서서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한 증거로 보여 진다. 가정사역의 신학적 일관성 결여는 성도들의 신앙적 혼란을 야기(惹起)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가정사역은 성경을 바탕으로 신학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한국 기독교 가정사역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에서 분석한 기독교 가정사역 기관 다섯 곳 전체와 몇몇 교회에서 사용 중인 가정사역 교재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 색채가 농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67) 감신대 M.Div.의 경우, 2006년도 M.Div.과정을 보면 기초필수16개 과목, 교단필수3개 과목, 전공분야1개 과목, 그리고 논문으로 총84학점을 요구하는데, 그 가운데 가정사역에 대한 과목은 전무하다. 서울신대 M.Div.의 경우, 역시 2006년 기준으로 6학기 93학점을 요구하는데, 기초필수72학점, 선택15학점, 논문 6학점이다. 역시 가정사역에 대한 과목은 없다. 침신대 M.Div.의 경우, 신학전공에서는 필수과목 75학점, 선택과목20학점, 그리고 논문을 요구해서 총95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기독교교육전공에서는 전공필수67학점, 전공선택20학점, 자유선택8학점 등 총95학점을 요구하는데, 전공선택 가운데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2학점짜리가 배정되어 있다. 고신대 M.Div.의 경우, 2006년도 2학기 시간표에 의하면, 화요일에 3학년의 경우 '청소년 상담:황동한교수'(14:30-16:00)한 과목이 있고, 목요일에는 2학년은 가정사역: 배평호(14:30-16:10), 3학년은 '가정과 상담: 하재성'(14:30-16:10), '남자사역: 정두영'(14:30-16:10)이 배정되어 있었다. 성결대 M.Div.의 경우, 선택과목 중 기독교 윤리(3학점) 가운데 가정윤리를 다룬다고 소개되어 있었다. 총신대 M.Div.의 경우, 39개 과목 73학점, 예필2개 과목6학점 등 79학점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는데 가정사역에 대한 과목은 전무했다. 장신대 M.Div.의 경우, 필수과목 59학점이 요구되며, 선택과목은 전공에 따라 다른데, 전공에는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와 문화,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교육, 교회음악 전공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실천신학 전공에 '결혼 및 가족상담'이 3학점 배당 되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이것은 특히 유대교 전통이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유대교 전통은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전통과 유사점이 많으며, 특히 한국교회에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가진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가정사역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사역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한국 기독교의 가정사역이 부부관계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진다. 필자가 분석한 가정사역 기관들이 실시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부부관계에 대한 것들이었으며,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있기는 했지만 미미한 상태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교회들도 대부분 부부관계에 편중해서 가정사역을 실시하는 경향이 짙었다. 가정사역은 부부들 중심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부모와 자녀관계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하나, 한국교회는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빈약했다. 한국교회의 가정사역은 부부관계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서 삼 세대(three generation)를 통전적으로 포괄하는 가정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동감하나 아직도 목회의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는 목회철학이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이며 물량적인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었고, 지나친 선교지향적인 목회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 가정사역에 무관심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정사역을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지며, 필자가 서울 창신동의 C교회(예수교 대한 성결교회)의 L목사, 하계동 J교회(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S목사, 수원의 H교회(장로교 합동측)의 J목사, 수원의 S교회(순복음) U목사, 여의도 Y교회(침례교) Y안수집사, 그리고 미국 남부 뉴저지 교회협의회 목회자 등과 인터뷰 및 토론결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정사역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가정사역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정사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여섯째, 한국 기독교는 가정사역에 대한 프로그램과 정보들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

이 문제로 본다.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기관들은 물론 가정사역을 실시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있었다(특히 안양의 S교회 등). 가정사역 기관들은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 또는 이수한 자에게만 자료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않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공개할 만큼 프로그램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나, 실상은 가정사역을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종의 "노하우"로 여겨지는 프로그램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사역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라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인식할 때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일곱째, 한국 기독교는 가정사역의 모델로 제시할만한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부 세미나-행복한 가정만들기"에서는 웨마교육연구원(현용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유대인의 가정으로 제시하나,¹⁶⁸⁾ 유대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의 모델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가정사역의 모델은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목회자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나, 김광일(1985), 박인용(1996), 정태기(1999)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¹⁶⁹⁾ 한국의 목회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목회자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목회자 가정이 가정사역의 모델로 성도들에게 제시될 때 가정사역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의 5,6,7장에서 부부관계,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들 정리하려고 한다.

168) "행복한 가정만들기," 87-88.

16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엄예선의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222-223을 참고할 것.

제 5 장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부부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남녀관계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연합(결합)된 부부단위로 시작되며, 부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립되기도 하고 이혼을 통해서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 가정사역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나 학문적인 이론이나 학설을 따르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부관계의 주체가 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남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창조질서의 남녀관계

기독교 안에는 창조과정을 중심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¹⁷⁰⁾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전11:8-9)는 것을 근거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으심을 받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창2:18-22)을 근거하기도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여자의 열등성을 주장한다. 때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전11:3)라는 구절을 근거로 여자의 열등함을 내세우기도 한다. 필자는 과연 이와 같은 성경구절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당

170)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80.

화시키기에 충분한가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몇몇 성경구절들의 진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므로 남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들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첫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둘째, "돕는 배필"의 참뜻이 무엇인가? 셋째,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후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반응한 의미가 무엇인가? 넷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에서 특별히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들 논의함으로 창조질서 속에서 결혼의 주체가 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살펴보고 한다.

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창1:27)고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다.¹⁷¹⁾ 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와 같이 "말씀"으로만 명하셔서 만드셨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2:26)라고 기록함으로 신적 속의들 거쳐 직접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탁월하게 지으셨음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본다.¹⁷²⁾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과연 열등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구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들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여러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본 절을 어떻게 주해하고 설명하고 있는가들 살펴보고 한다.

171) Mary Kassian, *여자, 창조, 그리고 타락*, 이정선 역 (서울: 도처출판 바울, 1992), 19.

172) 존 칼빈, *성경주해-창세기*,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69.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본 절을 주석할 때에 남녀가 본질상 동등하며 어느 한편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⁷³⁾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며(6:19:레 3:1,6), 특정한 개인들 즉, 하와와 아담을 가리키지 않고 보편적 남성과 여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양성(bisexual)을 지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다만 2장에서 보듯이 하와가 나중에 창조 된 것은 분명히 남 · 여 사이에 있는 질서의 순서를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남자와 더불어 나란히 여자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본질상 두 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한편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주석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며 각자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천명하고 있다.¹⁷⁴⁾

한편 지금까지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에는 암수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하셨다고 언급한 반면 특별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만은 한 구절 전체를 할애하여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음을 언급하며 또한 이들 모두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이 동시에 만들어진 반면 인간은 한 쌍만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는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이란 범주에 포함되는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동등하며 각자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먼저 Maston의 견해를 보면, 이 구절이 남자 "혹은" 여자라고 기록되지 않고 등위접속사인 "와"를 사용해서 "'남자와 여자들....'로 기록 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⁷⁵⁾ 이는 그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뜻하다.

173)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4), 332.

174)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149.

175)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50.

그는 또한 "가정에 대한 연구들 하는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역설했다.¹⁷⁶⁾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¹⁷⁷⁾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속한 것이며, 서로에게서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 기체의 룩니 두 개가 서로에게 맞물림으로 기체들 물게 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바이올린과 활대(bow)가 서로에게서 자신들의 제조 목적을 이루어 가듯 남편과 아내로서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박철우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창조하시어 우주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남녀 모두를 우주의 왕이요 여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시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 1장 26-27절의 문장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들 함께 창조하셨음이 선포 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며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제도의 성스러움과 남녀평등 원칙의 선포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¹⁷⁸⁾

김세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뜻을 내포하며, 하나님의 모양을 따랐다는(in the likeness of God) 뜻으로 이보다 더 분명히 남녀의 동등성을 천명하는 구절은 없다"고 주장했다.¹⁷⁹⁾

차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의미에는 적어도 네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⁰⁾

첫째, 사람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왕과 같이 최고의 존재로, 즉 피조물 중에

176)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50.

177) Ibid, 53.

178)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4), 43-44.

179)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13.

180)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12-13.

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평등(동등)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제국의 대왕들이 광대한 영토를 통치할 때, 자기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먼 지역에는 왕 자신의 형상(동상)을 만들어 세움으로 그 지역에 대한 왕의 통치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다른 피조물(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셨다.

넷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들을 갖는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Communion:기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허용된 선물이요 특권이라 하겠다.

Stott는 남녀 어느 한 쪽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거나 더 많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¹⁾

처음부터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었으며, 남자와 여자들은 신적 형상과 땅에서 지배권 둘 다에서 대등한 수혜자였다.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다든가,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땅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암시가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것과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들의 청지기직(그것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은 처음부터 대등하게 공유된 것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닮도록 대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주석가들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동등(평등)하며 결코 어느 한편이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181) John R. W.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05), 377.

서의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동치의 대리자들로 평등한 부왕(副王: viceroy, vicegerent)들이며, 동등하게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동치들 대행하는 사람들이다.¹⁸²⁾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어느 한쪽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거나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음이 분명한데 이는 처음부터 대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도 남녀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⁸³⁾

나. "돕는 배필"로 지으심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창2:18)고 되어있다. 여기서 필자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한 단계 낮은 보조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그러한가?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성경의 번역들을 참고함이 유의하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번역의 사례(實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원어 분해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18 절의 이 부분을 "에젤(ezer)" - "돕는 자는", "케네그도(kenegdo)" - "그에게 적합한, 그와 같은" 이라고 이 구절을 분해함으로, 결국 돕는 배필의 의미는 "그에게 적합한, 또는 그와 같은 돕는 자"라고 설명한다.¹⁸⁴⁾ 우리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일을 거들 짝"으로, 표준새번역 성경에서는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으로 번역했다. OASV에는 "그에게 응답하는"(answering to him) 짝이라고 되어있고, NASV와 NIV에서는 "그에게 어울리는 조력자"(a helper suitable for him)로, RSV에서는 "그에게 적당하게 어울리는 조력자"(a helper fit for him)로, NKJV에서는 "그에게 필적할만한 조력자"(a helper comparable to him)로 번역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느 번역 성경에서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종속성이나 열등의 의미

182)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6), 31.

183) Henry J. Foster, *베이커주석 고린도전서*, 장지현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331.

184) 원어 분해 성경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7), 12.

로 번역하고 있지 않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속에는 남녀의 동등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를 펴력한다. 천사무엘은 돕는 배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¹⁸⁵⁾

"에제르"의 동사형인 "아짜르"는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사30:7, 31:3). "크네그도"는 "짝을 이루는"(counterpart), "대응한" 혹은 "동등한"(correspond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돕는 배필은 대응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짝, 혹은 외로움의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내는 동반자들 의미한다.

김남준은 "돕는다"는 의미의 "에제르"가 응원군(應援軍)이란 뜻을 가진 말로 전쟁에서 패배의 위기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찾아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의미가 없으며, "그들 위하여"라고 번역된 "크네그도"도 "대응하여" 혹은 "맞먹는"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종속관계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⁸⁶⁾

차준희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향해 주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말이며,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⁷⁾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배필"이란 말이 형용사이고, "돕는"이란 말이 명사로 나와야 한다. 히브리 본문에 충실 한다면 "동등한 돕는 자"이다. 즉 그의 파트너와 대응한 돕는 자(a helper like his counterpart:에제르 크네그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동등한"이란 의미다. 이 말은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의미한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두 존재가 차이가 있는 차별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돕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말로 "에제르"인데,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22번 언급되며, 두 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쓰는 구별된 용어로서 창세기 2:18절에서 사용된 "돕는 자"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말쑤이지 여성만을 향한 말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85) 천사무엘, *성서주석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84.

186)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두란노, 1998), 60.

187) 차준희, *구약성서의 신앙*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7), 248-249.

(중략).....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 중심에서 여성을 향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진 말인 것이다. 이에 부부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책에서 차준희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어원적인 의미들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¹⁸⁸⁾

돕는 배필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돕는 반대자": 크네그도에는 "~와 반대되는"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의하면 돕는 배필이란 "돕는 반대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만일 남자가 존경받을 만하면 그의 아내는 돕는 자(에제르)가 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반대자(크네그도)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부부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개체의 파괴는 곧 전체의 파괴와 같은 것이며 동시에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돕는 반대자"이기 때문에 결국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 "동등한 돕는 자": 크네그도에는 "~와 마주보는/동등한"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돕는 배필"이란 "동등한 돕는 자"라는 의미다. 남녀는 동등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살도록 창조 되었다. 즉 서로 "동등하며", "열등하지 않고 상호 보충적"이다. 결국 돕는 배필이란 "완전한 짝을 이루어 서로 돕는 동반관계"를 말한다.

셋째, "신적 도움을 주는 대등한 돕는 자": "에제르"는 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언급할 때 쓰는 말이다(출18:4, 신33:7, 시121:1 등). 창세기2:18은 남자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매개하는 통로가 된다. 결국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대등한 돕는 자"라는 뜻이다.

권성수는 다음과 같이 돕는 자의 의미들 설명한다.¹⁸⁹⁾

"돕는 자"라는 말은 "그에게 부합하는 돕는 자", "그에게 상응하는 돕는 자"(Corresponding to him, his counterpart)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자입니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돕는 자"란 말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조력(mutual help)과 상호반응(mutual correspondence)이 그

188)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24-25.

189) 권성수, *청년과 신앙* (서울: 한국개혁신학 연구원, 1991), 19.

것입니다.

김상복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의 개념이 없고 동등한 관계가 있음을 펴력하고 있다.¹⁹⁰⁾

우리말 성경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18절에는 그냥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서성경에는 "suitable" 또는 "corresponding to"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종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여자는 남자와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남자에다가 짐승 여자를 붙여놓으면 안됩니다. 짐승은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남자를 돕는 배필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거나, 많은 학자들의 논지들을 종합해 볼 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 어느 한쪽의 열등성이나 종속성의 개념이 없고, 오히려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알맞고 적합한 조력자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는 성품과 신분이 같으며,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지탱해주며, 외로움과 위험에서 구원해 내는 파트너와 동등한 돕는 자이지 결코 어느 한쪽이 종속관계에 있지 않다. 때로는 돕는 반대자가 되어 "예"와 "아니오"를 말하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호보충적인 동반자로서 완전한 짝을 이루어 상호조력과 상호반응을 통해서 신적 도움을 주고받는 대등한 돕는 자임이 분명하다.

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그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라고 환호하며 반응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나 여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갈비뼈 자체가 아니라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창조행위로 지으신 것이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90) 김상복, *잃어버린 왕좌* (서울: 젯볼, 1995), 135.

특히 본문에서 사용된 "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셈"('etsem)인데, 이 말은 자동사로는 "힘세다", 사역동사로는 "강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이 말은 명사어인 "아삼"('atsam)에서 유래된 말로서, "뻘"(강한 것으로) : 연루된 의미로 몸 : 상징적으로 "실체" 즉(대명사로) 동일한, 똑같은, 자기, 자아, 본질, 그 자신(자체)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다.¹⁹¹⁾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뻘 중의 뻘"라고 환호하며 외친 것은 여자가 자기와 똑같은 존재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성경주석가들의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반즈 주석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뻘과 살로 만들어졌다. 여자가 취해진 몸의 그 부분은 최심저의 요소이다. 여자는 남자의 머리카락에서 취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것이다. 여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남자와 동등이다"라고 해석한다.¹⁹²⁾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주석한다.¹⁹³⁾

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잇쉬"는 남자란 뜻의 "이쉬"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는 어원적으로도 여자는 남자의 뻘과 살로 지음 받은 사실을 시사해 준다. 결국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불가분의 존재로서 본질상 하등 다름 바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이상호도 "여자의(뻘자가 첨부함) 어원이 남자(yi-sh)에게 왔기에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이며, 영원한 동반자이다"라고 말한다.¹⁹⁴⁾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 의하면, 여자에 해당되는 "잇쉬"는 남자를 의미하는 "이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뻘 중의 뻘, 살 중의 살이라는 표현은 뻘 중에 가장 소중한 뻘,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해함으로 아담에게 하와가 얼마나 소중한고 가치 있는 존재였는가를 말하고 있다.¹⁹⁵⁾

Mary Kassian은 "내 뻘 중의 뻘라는 말은 동일한 뻘, 동일한 몸, 동일한 자아들

191) 조두만 편역,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서울: 성지사, 1987), 255.

192) H. C. 튜폴드, *반즈주석 창세기*, 최종태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2), 114.

193)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347.

194) 이상호, *창세기* (서울: 동해출판사, 1999), 78.

195)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216-217.

의미 한다. 살 중의 살 역시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확대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의 일부로서 창조하신 여자가 자신과 동일한 본질임을 알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한다.¹⁹⁶⁾

이와 같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자료와 성질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뼈, 동일한 몸, 동일한 자아를 가진 동일한 본질로서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은 동일한 존재요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에서 "머리"의 의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머리"라는 단어는 때로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 곧 "탁월함, 영광, 혹은 존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원"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⁹⁷⁾ "머리"라는 말의 헬라어 "케팔레"(kephale)가 "우두머리", 혹은 "통치자"가 아니라 "원천" 혹은 "시작"을 의미하며,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자를 여자의 "기원"으로 묘사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는 1954년 신학연구저널(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에 실린 스티븐 비데일(Stephen Bedale)의 "바울 서신에 나오는 케팔레의 의미"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고, 이런 비데일의 입장을 1971년에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를 이끌었던 영국의 신약신학자 F. F. Bruce와 C. K. Barrett가 그들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지지했으며,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용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¹⁹⁸⁾

"머리"에 대한 다양한 주석과 학자들의 견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에서는 "머리"(κεφαλή)는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를 가리킬 때 주로 쓰이지만(마5:36, 막6:24, 요13:9, 계10:1) 본 절에서와 같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중심되는 인물로서의 우두머리란 의미(엡5:23, 4:15)를 지니기 때문에, 절대군주의 절대

196) Mary Kassian, *여자, 창조 그리고 타락*, 22-23.

197) Craig S. Keener, *바울과 여성*, 이은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72.

198)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396.

복종을 요구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존재론적 서열, 그리고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¹⁹⁹⁾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고전11:8)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서에 있어서 남자에게 우선성이 주어졌으므로 창조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이 사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자에 대한 종속성이 아니라 여자의 기원이 남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²⁰⁰⁾

Maston은 "머리"가 "높은 계급이나 권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남편과 아내관계의 상호의존성(mutuality)을 강조한 것이므로, "바울이 질서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말했을지는 모르지만 여자가 더 열등하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암시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²⁰¹⁾

국제성서주석에서는 "그리스 어법에서 이 말(머리 κεφαλή)은 비유적으로 쓰일 경우에 전체 가운데 두드러지고 결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기원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주(κύριος)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남자가 여자의 존재의 기원이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²⁰²⁾

김세윤도 바울이 "머리"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4절과 7절에서는 문자적으로 쓰지만 여기서(고린도전서 11장 3절)는 전의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머리가 전의어로 쓰일 때는 구약에서는 한공동체의 우두머리(지도자)를 의미하고(삿10:18), 헬라어(kephale)로는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부분"을 뜻하거나 "원천"의 뜻이기도 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8-9절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원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²⁰³⁾ 특별히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8-9절에 대해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논리를 길게 펼치다가 남자도 여자(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논리의 모순성을 스스로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마무리했다"면서, 이 구절은 남자들에 대한 여자들

199)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고린도전서*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125.

200) Ibid. 132-133.

201)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101-102.

202) 찰스 K. 바레트, *국제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한국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2006), 290.

203)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259.

의 종속을 가리키는 논리라기보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교훈을 강화시키기 위한 논리라고 말함으로 고린도전서 11장 8-9절을 근거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일축한다.²⁰⁴⁾

Stott도 "우리는 머리됨이 가부장적이거나 생색내는 뜻한 온정주의, 독재, 지배를 의미하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굴복, 종속, 복종을 의미하기라도 하듯이 여기는 제급제도의 감정적 언어 전체를 분명 거부해야 한다"²⁰⁵⁾고 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은 통제의 머리됨이기보다는 보살핌의 머리됨, 권위의 머리됨이기보다는 책임의 머리됨이다"라고 주장한다.²⁰⁶⁾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전11:3)는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됨 같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렌스키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남자에 대한 관계성 전체를 표현한 말이 아니라 그의(남자의) 존재와 생명(being and life)에 있어서의 종속관계(relation of subjection)만을 표현할 뿐이라면서, "머리"란 우월의 개념(the idea of superiority)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시며 남자는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고 말한다.²⁰⁷⁾ 그는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라는 말이 세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할 때만 관사가 사용되고 있고(한글 개역 성경에는 생략 됨), 두 번(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은 관사가 생략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관사의 생략이 뜻하는 바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됨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밝힘으로,²⁰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말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했다.

남명희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나 8-9절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⁰⁹⁾

204) 김세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64-65.

205)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396.

206) Ibid. 398-399.

207) 렌스키, *고린도전서*, 문창수 역 (서울: 백함출판사, 1982), 384.

208) Ibid. 385.

바울의 논증은 처음부터(3절) 하나님 - 그리스도 - 남성 - 여성이라는 권위의 서열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여 머리들 가릴 것을 호소한다(4-6절). 그런 후 여성의 열등성의 강조를 위해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8-9절)는 창조설화까지 끌어온다. 그러나 그는 논증의 중반에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새 견해를 제시한다. 즉, 여자는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는 것을 주장함(11,12절)으로써 앞뒤 문맥의 모순을 드러낸다. 모순된 이러한 논조는 전체적인 문맥인 여성들이 남성에게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너울을 씌으로써(5절) 그의 논의를 벗어난다. 그는 왜 이렇게 모순되는 가르침을 말해야 했을까? 그것은 그의 랍비적인 전통적 사고와 복음을 통해 얻은 그의 새로운 통찰력 사이에서 여성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전통적 관습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일 것이다. 즉 그것은 8,9절이 너무 전통적임을 깨닫고 바울이 "그러나"란 말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단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제시된 새로운 질서(11, 12절)를 말하는 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김지철도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당시 유대주의와 헬라적인 이해들 바탕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수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¹⁰⁾

바울은 당시 유대주의적 이해와 헬라적 이해들 통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들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주의적 의미, 곧 창세기의 인간창조기사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질서를 말해주고 있다. 곧 창세기 2장 18-23절의 의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고 남편을 위한 적합한 조력자로서 지음 받았다는 의미에서 남자들 여자의 머리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첫 범죄에서 파생한 결과로서 남자가 여성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창3:16)는 의미들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해는 당시 일반적인 유대주의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여기서 유대주의적 사고들 그대로 받아들여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남

209) 남명희,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170-171.

210) 김지철, *성경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19-420에서 필자가 요약함.

자에 대한 강조도 단지 창조 사건에 의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음을 나타내는 뜻일 뿐이다. 바울은 한 편으로는 유대주의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그 견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수정 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11:11-12).

이와 같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전11:3)라는 말을 근거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힘이나 다스릴 권리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source) 혹은 원천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²¹¹⁾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8-9절을 근거로 여자보다 남자가 열등하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의 우열관계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시에 여자들의 복장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논의한 결과들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함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Paul Jewett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²¹²⁾ 이라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인격을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등한 피조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¹³⁾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든지, 종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알맞고 적당하도록"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여자가 남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조자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남자와 여자는 상호조력 내지는 상호반응이라는 관점에서 평등한 관계로 보아야 하며, "상호 보완성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²¹⁴⁾ 특히 Matthew

211) 마가렛 헤스, *더 즐겁게 사는 부부*, 최수경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55.

212) Paul K. Jewett, *Man as Male and Female* (Grand Rapids: Williams B. Eerdmans Publ. Co., 1975), 33.

213) 미나또아끼코, *여성의 진정한 자기확립*, 김혜강 역 (서울: 엘멘 출판사, 1992), 75.

Henry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해석을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¹⁵⁾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하여 옆구리 부분에서 취하여 만들었으며, 보호함을 잘 받도록 하여 주기 위해 팔 밑에서 취했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취하여 내셨다.

셋째로,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지음을 받고, 여자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죄가 많고 열등하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뒤에 오는 것이 완성된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고 본다.²¹⁶⁾ 그러므로 남자보다 여자가 늦게 지음을 받았으니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존재나 기능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는 없다고 본다.²¹⁷⁾ 특히 박익수가 "창세기의 설화와 타락설화가 원인론적인 진술일 뿐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디모데전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여성비하의 내용이 창세기의 보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해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¹⁸⁾ 따라서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고 여자가 속임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은 저자(바울) 이전의 유대교의 가르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넷째로,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자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대상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타락이전의 창조의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말할 때 "머리"라는 말이 통치자나 우두머리들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근원" 혹은 "원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214) Alan Storkey, *결혼과 가족*, 황영환 역 (서울: 서울서적, 1985), 25.

215) 메튜 헨리, *창세기 주석*,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88.

216) 김세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14.

217) Mary J. Evans, *성경적 여성관*,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20.

218) 박익수, *성서주석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30.

것이 남녀의 우열을 가리는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1장 2-16절은 남녀의 우열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공예배시에 갖추어야 할 복장에 관한 문제들 다룬 것이며, 바울이 머리에 대한 논의들 길게 펼치다가 새 창조의 질서들 의식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타락질서의 남녀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조질서에서는 남녀가 동등했다. 그러나 창조질서의 남녀동등(평등)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즉,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난 후에 남녀의 동등성이 상실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나타난다. 김세윤은 "창세기 3장16절부터는 타락의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종속적인 면모가 구약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예로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 여성 참여가 극히 제한되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고, 그래서 일부다처주의가 행해지고,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이루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었고, 구약 곳곳에 여성들을 비하하는 문구들이 많다"고 말한다.²¹⁹⁾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모한다"(테슈카)는 말은 "의뢰하다", "기울어 의지하다"는 뜻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런 권위가 유대 사회에서 종속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여자는 남편 또는 주인의 소유로서 취급(출21:3, 신20:33) 되었을 뿐이다.²²⁰⁾

또한 "다스린다"(이므살)는 말은 "주장하다"(시19:13), "거느리다"(대하23:20), "치리하다"(신15:6) 등의 뜻을 갖는 "마살"의 미완료형으로 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나, 이 구절을 근거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절대 권리가 있다거나 여자는 남자에게 예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²¹⁾

219) 김세윤,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18.

220) 강병도, *성경연구 시리즈 창세기-출애굽기* (서울: 기독지혜사, 1998), 4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의도했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동등(평등)한 관계로서 사랑과 이해 및 순종의 관계였으나(창1:22-23), 범죄 후 부부관계는 위계 질서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말은 보다 강화되고 법(法)조문화 된 부부간의 위계질서를 의미할 뿐이며 예속이나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²²²⁾ 이것이 유대사회에서 남성 우월적인 성향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남성우월적인 사상은 타락의 질서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가 아님이 분명하다.

3. 새 창조질서의 남녀관계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질서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녀 관계가 어떤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후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질서가 생겼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엡2:5) 말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5:17)라고 새 창조질서를 선언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²²³⁾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3:28)라고 말함으로 새 창조질서에서는 인종적 차별이나, 사회적인 신분의 구분, 그리고 남자나 여자의 구분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동등함을 분명히 하는 것은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보아서 과히 혁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헬라어로는 "남성과 여성"(아르센 카이 켈뤼; *arsen kai thely*)이다. 이는 칠십인역 헬라어 창세기 1장 2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남자와 여자"(아네르 카이 귀네; *aner kai yuvn*)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²²⁴⁾ 즉, "남자와 여자"는 장성한 남자, 장성한 여자를 뜻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221)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창세기, 260.

222)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360.

223) 아라이사사구, 신약성서의 여성관, 김운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97.

224) 김창락, 성경주석 갈라디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12.

모든 연령층을 망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평등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²²⁵⁾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노예나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권속들이며,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고려할 경우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느 한 성이 우위를 지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모든 민족, 모든 조건, 남녀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임을 깨달아야 한다(갈3:28).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타락의 질서들 따들 것이 아니라 옛 창조질서들 넘어 새 창조질서들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구약성경에서도 여선지자들이 활약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로 불렀고(출15:20), 드보라는 수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 그들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실제로 그들을 전장으로 이끌고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다(삿4-5장). 또한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 받고 보냄을 받아 활동한 홀다와 같은 여성(왕하22:14-20)도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새 창조질서 속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림에는 인종이나 신분, 그리고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요3:16). 이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구별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 가운데는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나타나 승리의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도록 맡긴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요20:10이하, 마28:8이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신명기 법에 의하면 여자는 증인으로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²²⁶⁾

또한 오순절에 성령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임했고(행2:1-17), 성령의 은사역시 성적(性的)인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주어졌는바 전도자 빌립의 결혼하지 않은 네 딸들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아 활동했던 일(행21:9), 그리고 고린도교회에서 여자

225) 김창락, *성경주석 갈라디아서*, 312.

226) 김세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28.

들이 설교활동에 인정된 일(고전11:2-16) 등은 새 창조질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남녀의 구분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 창조질서에서는 사역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분이 철폐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바울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뵈뵈를 천거했고(롬16:1),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4:15)라고 문안한 것으로 보아 여성인 늄바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남편인 아굴라 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행18:18, 26, 롬16:3, 딤후4:2). 한편 빌립보 교회가 여성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거니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빌4:2-3)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마서 16장 7절을 보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라고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대로 라면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자" 혹은 "사도들 중에서 탁월한 자"(outstanding among apostles)이기 때문에 유니아를 사도로 부르기도 했다(롬16:7). 엄예선은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⁷⁾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남자만 "사도"로 파송하셨을 것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선입관에 의해 로마서 16장 7절은 오해되어 "유니아"(Junia)를 남자 이름 "유니아스"(Junias)로 바꾸거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자들이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오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예: 한국 개역한글판).

Stott는 유니아가 여자였음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녀가 작고 권위적인 집단인 그리스도의 사도에 속해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녀는 "교회의 사자들"(apostle of the churches, 고후8:23), 즉 일종의 선교사였을 수도 있다면서, 바울은 그녀가 사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의미로 말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²⁸⁾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헬라어 원문대로 볼 때 그녀는 사도였고, 적어도 그녀는 여성으로서 초대교회에

227)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195.

228)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405.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에 틀림없다고 보여 진다.

특히 박익수는 디모데전서 2장 9-15절을 근거로 "여자의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남자에게 복종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²²⁹⁾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 교회의 여성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종교의 사당 여(女)사제들처럼 황홀경에 빠져 신박을 하며 남자를 지배하고 가르침으로써 가정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을 금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여자는 감독이나 장로는 할 수 없으며 단지 여(女)집사로서 봉사하는 일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²³⁰⁾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오늘날처럼 장로직 보다 낮은 의미의 봉사자로서의 여(女)집사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존경받을만한 남자 봉사자들에 관해 말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여자 봉사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 봉사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자로서의 집사와 장로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¹⁾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 창조질서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전혀 없다. 한결을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받음, 그리고 그 은사들 통한 복음 사역에 종사함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 조금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혼제도는 인간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전(前)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다. 따라서 결혼제도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도 자의로 결혼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혼은 국가에 의존해 있지 않으며, 결혼법은 국가법보다 우월한바, 그 법은 국가에서

229) 박익수, *성서주석 디모데전.후서/디도서*, 130-131.

230) Ibid., 131.

231) Ibid., 131.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³²⁾ 예수께서도 "창조 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쥘니라"(막 10:6-9)고 말씀하심으로 결혼이 창조질서임을 수증하셨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한다.

성경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마19:10-12, 고전7:7), 내세에서는 결혼이 폐지될 것을 말씀하기도 한다(막12:25). 그러나 결혼은 인류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하고, 현질서가 계속되는 동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야 한다(히13:4).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만물을 창조하심은 물론, 결혼의 주체가 되는 남자와 여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혼인잔치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혼인을 금하는 사람들은 미혹하게 하는 영(靈)에 잘못 인도된 거짓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음(딤후4:1이하)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었지만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2:18)고 기록되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워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이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기뻐하며 환호했었고(창2:22-23),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결혼의 정의에 대한 가장 근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원리와 기초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 이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결혼의 원리와 기초는 첫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것. 둘째, "부모를 떠나는 것". 셋째, "서로 연합하는 것". 넷째,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232) Emil Brunner,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평민사, 1984), 187.

1.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녀를 환영함으로 최초의 결혼이 이루어졌다(창2:22).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막10:9)이라는 구절은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에 기초한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배경으로 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기초한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결혼하는 당사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부모를 떠남

원만한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 당사자들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 "부모를 떠남"이란 결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공적이고 법적인 행동을 표시하기 때문이다.²³³⁾ 여기서 "떠나다"(아자브)는 "남겨두다"(삿2:21), "끊다"(창24:27), "집을 부리다"(출23:5)라는 뜻으로 원래 속했던 집단과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는 것을 가리킨다.²³⁴⁾ 이것은 또한 "자녀-부모"의 인간관계로부터 "남편-아내"의 인간관계로 대체됨을 의미한다. 특히 본문에서 "떠나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결혼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기는 하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을 암시한다.²³⁵⁾ 따라서 "떠남"이란 부모로부터 떠나 홀로 서는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오직 사랑과 성숙과 편의와 경계의 관점에서 떨어짐을 가리키는 것이며,²³⁶⁾ 한걸음 더 나아가 이는 심리적 태도로써 책임 면에서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 서는

233) Walter Trobisch,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28.

234)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208.

235) Ibid. 209.

236)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347.

것이다.²³⁷⁾

그러나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Jack O. & Judith K. Balswick는 분화되지 못한(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함)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첫째, 자신의 본래 가정 안에서 그물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둘째, 본래 가정으로부터 이탈 된 사람들이다"고 말한다.²³⁸⁾ 그물화 된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본래의 가정과 강하게 결합된 사람들이고, 이탈된 사람들은 가정으로부터 너무 소원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함은 자명한 것이며, 결혼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고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여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반대로 여자가 정신적으로 친정부모를 떠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부부의 온전하고 헌신된 "영원한 연합"을 위해서 두 사람 모두 "남몰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거행함으로 "공개적으로 부모를 떠남"이 필수적임을 깨닫는다. 특히 공개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중요한바, 이것은 "결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 된 "동거"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라는 구절이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이 구절은 결혼의 영속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서 "연합하다"(다바크)는 "착 달라붙다", "붙이다"(stick), "붙어 떨어지지 않게 하다", "풀로 붙이다"(paste)는 의미로²³⁹⁾ 남편과 아내는 마치 두 장의 종이를 아교로 한데 붙여 한 장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된 예는 "붙좃다"(룻 1:14), "속하다"(렘13:11) 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

237) 김상복,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31.

238) Jack O. &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89.

239)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성경대전*, 74.

서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²⁴⁰⁾ 이와 같이 연합이란 부부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 됨을 뜻하는 것으로써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의 영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²⁴¹⁾ 그러므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결혼에 대한 설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이 구절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부터 일부일처(一夫一妻)의 연합(결합)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많은 짝(쌍으로)을 지으신 것으로 보이지만, 아담의 짝은 오직 하나만을 지으셨다(말2:15).²⁴²⁾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한 여성인 하와 뿐이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실 때에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존재했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의 결혼은 일부일처제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종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창4:19)고 기록함으로 일부일처제를 깬 첫 번째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등 소위 믿음의 거장들이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음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 다윗은 적어도 10명의 첩을 거느렸고(삼하15:16, 20:3),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왕상11:3)이었으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첩 60명을 통해서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다(대하11:21).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풍습처럼 보이지만 왕족이나 귀족들, 그리고 부유한 계층에 속한 일부에 제한된 일이었고 성경 전체를 볼 때 일부일처제가 가장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위에서 열거한 왕들은 "아내들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라는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현격하게 어긴 것이며, 그로 인해서 가정과 국가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가르친다.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요, 장차 그리스도와 교

240)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209.

241) 김중기, "행복한 결혼의 기초," 기독교 사상, 1982년 5월호, 82.

242) 동독성경 말라기 2:15절의 난하 주에는 본 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이며 그 해석 또한 매우 다양하나 대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하시어 아담에게 더 많은 아내들 만들어 주실 수 있었으나 오직 한 아내만을 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 그러니 너도 네 자신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들 배반하여 버리지 말라." (자료출처: 동독성경,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4)), 1329.

회의 합일이라는 구속사의 거룩한 섭리가 깃든 신성한 제도였다(엡5:31, 32). 하지만 타락한 인간 문화는 라멕 이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좇아 일부다처(一夫多妻)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²⁴³⁾

셋째, 이 구절은 서로 다른 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오늘날 서구의 몇 나라와 미국의 Massachusetts 주(洲)나 New Jersey 주(洲)등에서는 동성가정(同性家庭)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하며, 이런 분위기는 점점 확산되어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창2:24)라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은 동성(同性)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性)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성(性)의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나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롬1:26-27)라고 바울은 지적한다. 교회는 동성애(homo sexuality)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동성결혼은 죄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²⁴⁴⁾

4. 한 몸이 됨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몸을 이끌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한 살이 될지니라"로서 70인 역에서는 "에이스 살카 미안"(εις σάρκα μίαν 마19:5)이란 말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히 두 몸이 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낱말로써 "이의 공동체" 또는 "애정의 상호 당사자" 등을 표현하는 말이다.²⁴⁵⁾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그들은 다같이 전체를 이루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²⁴⁶⁾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위대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²⁴⁷⁾

그렇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도

243)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376.

244) 옥성호, *심리학에 묻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316.

245) 풀뫼트 성경주석, 창세기(상), 풀뫼트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236.

246) Theodor Bovet, *부부학개론*, 임석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0), 94.

247) Harold J. Sara, *한 몸이 될지니라*, 오진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2.

계속해서 두 인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즉, 독립된 하나가 또 다른 하나와 합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가 된다는 뜻이 한 몸 됨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은 남녀평등의 원칙과 상호주의의 관계에서만 하나 됨이 성립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결혼식에서 결혼식이 끝날 무렵, 부부연합의 상징으로 가운데 촛불만을 남겨 두고 각자를 상징하는 양쪽의 촛불을 끄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세 개의 촛불이 동시에 켜져야 한다는 Hunt의 주장²⁴⁸⁾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암시하는 바, 이들 근거로 결혼을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결혼이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것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배경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관계로 이루어지며, 결혼식을 거행함으로 공개적으로 부모를 떠나, 영구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둘이 친밀함을 유지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3절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1. 구약의 가르침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일평생동안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조강지처에게 레사들 행하여 이혼을 남발하는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다(말2:16). 하나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없었다(레21:7,14, 겔44:22). 이는 이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요소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제도는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설계로 세우신 것이요, 이혼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로서 옳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본다.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못했고 다만 혼인 혹은 약혼의 취소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게다가 여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고 오직 남자 편에서만 가능했으며,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248) Hunt, R. A. 2004. Private conversation. May 5, 2004 in Pasadena, CA, U. S. A.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1980. Edited by David L. Sills. New York: Macmillan.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274에서 재인용.

중서만 주면 가능했다.²⁴⁹⁾

구약성경에서 이혼에 대해 특별히 다룬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이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중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들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들 미워하여 이혼 중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들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들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들 내어 보낸 전부가 그들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 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이혼에 관한 이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가지 요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이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나, 권하는 것이거나, 재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규정의 결정적인 목적은 예측할 수 없고 어쩌면 잔인할지 모르는 전 남편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²⁵⁰⁾ 유대인들의 이혼 관습은 여자들을 법적인 보호에서 제외시켜 남자들의 자의적인 폭력에 방치되어 비참한 상태로 몰았는데, 재혼해 줄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여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었다.²⁵¹⁾ 또한 이 구절의 일차적인 주된 관심사는 이혼중서가 아니라 남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규정은 이혼이 공적으로 공평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규정이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일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과 같이 정당한 이혼사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⁵²⁾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에르와트 따바르"로 "벌거벗은 것" 혹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의미로 사용되며, 창세기 23:14절에서는 "불합한 것"으로 번역되었다.²⁵³⁾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249) 조경원, *성서주석 - 마태복음(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45.

250) John R. W. Stott, *결혼과 이혼*, 김원주 역 (서울: 두란노, 1991), 16.

251) 조경원, *성서주석 - 마태복음(1)*, 247.

252) John Williams,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 신광출판, 1988), 120.

"여자의 간음"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여자가 간음을 하면 이혼이 아니라 투석형에 의해 처형을 받기 때문이다(신22:20, 레20:10).

주후 20년경에 살았던 유대의 유명한 두 랍비인 샴마이(schammai)와 힐렐(Hillel)은 이 "수치스런 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샴마이가 힐렐보다 더 엄중하게 해석했다. 샴마이는 "수치되는 일"의 히브리어 어근이 "벌거벗음" 혹은 "노출"을 암시한다는 것을 근거로 "성적인 결합이나 수치"로 제한했으나, 미쉬나와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힐렐은 아내가 자기 첫 남편에게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구절(1절), 혹은 두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미워한다"는 구절(3절)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들은 아주 사소한 나쁜 행실로 해석했다. 예를 든다면, 남편을 위해 만들던 음식을 망쳤거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또는 남편이 그 여자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우연히 만나 그 여자한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등으로 남편을 성가시게 하거나 난처하게 하는 어떤 것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로 보았다.²⁵⁴⁾ 이와 같이 힐렐의 견해를 따른다면 남편이 원할 경우에는 너무 쉽고 또 자의적으로 아내의 "수치스런 일"을 찾아낼 수 있었다. 더욱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필로나 요세푸스는 남편이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으며 이 때 이혼증서만 주면 된다고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하기도 했었다.²⁵⁵⁾ 아무튼 이 규정은 이혼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셋째, 만일 이혼이 허용되었다면 재혼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일단 그녀가 이혼증서를 받고 집에서 내보내졌다면, 그녀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 이혼 증서에는 "당신은 이제 가도 좋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있고, 당신도 그를 원한다면 그가 당신을 취해도 좋습니다."라는 특정양식의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야 했다.²⁵⁶⁾

그러나 남자가 아내를 버리지 못할 조건이 두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하나는,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고 거짓으로

253)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신명기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631.

254) Joachim Jeremias,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463.

255) 조경원, 성서주석 - 마태복음(1), 247.

256) Ibid. 245.

우기고 파혼을 하려고 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이들 장로들에게 고소하여 그 거짓이 판명 될 경우 그녀의 남편은 장인에게 벌금을 내고 또 그 아내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었다(신22:13-19). 다른 하나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들 만나 그들 붙들고 동간하는 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간한 남자가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했다(신22:28-29).

2.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이 이혼에 관한 말씀인데(마5:31-32), 이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문제를 언급하셨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공식을 사용하셨다. 이는 산상수훈 가운데 사용하신 여섯 가지 대조법 가운데 하나였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록된 것"(it has been written)이라 말하지 않고 "...라는 것을 들었으나"(it has been said)라는 어법을 사용하셨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구전(口傳)을 통해서 유대전통으로 내려온 이혼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린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²⁵⁷⁾

이혼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이혼 절대금지"와 "조건부 이혼 허용"으로 대별된다. 즉, "이혼 절대금지"에 해당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3-6절, 마가복음 10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10-11절이며, "조건부 이혼 허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12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8절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혼 절대 금지"에 해당되는 구절들은 예수의 실제 말씀이고, "조건부 이혼허용"이라고 보는 구절들은 예수의 이혼 절대불가 교훈에 대한 초대교회의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령, 조정철은 "예수의 실제적인 교훈은 조건적 표현이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고 초대 교회의 해석은 조건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조건부 이

257)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425.

혼 허용은 원문에는 없지만 초대교회가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⁵⁸⁾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예외규정에 대해서 말한다.²⁵⁹⁾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두 가지의 경우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전체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정신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가복음 10장 2-9절(cf. 눅16: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수치되는 일"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 주고 쫓아내는 것을 허락하는 구약의 율법(신23:1-3)과 이 모세의 율법을 남성위주로 너그럽게 해석하여 아내를 쉽게 이혼하고 쫓아내는 유대교의 관행에 맞서 예수께서는 이혼은 창조주의 창조의 뜻에 어긋나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었음에 어긋나는 것으로 죄악시하며 금한다. 이 가르침으로 예수는 물론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혼을 없애려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아무 권리 없이 쉽게 내쫓김을 당하던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뜻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의 이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간음의 경우들 예외조항에 덧붙인다(마19:3-9, 5:32). 간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한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결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행위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이룬 원래의 "한 몸"을 깨는 행위이다(cf. 고전6:16,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남성위주로만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음을 했다는 말은 원래의 결혼으로 이룬 "한 몸"을 찢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혼자체를 찢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이혼이라는 공식절차는 간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결혼파기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 타락의 세상에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간음이 종종 발생한다. 이것을 감안하여 마태는 이혼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같이 들리는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두 번이나 "음행의 연고 외에는"이라는 예외단서를 덧붙인 것이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는 근본적인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혼을 없애려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아무 권리 없이 쉽게 내쫓김을 당하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예수는 자신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바

258) 조경철, *성서주석 - 마태복음(1)*, 250-251.

259) 김세윤, "가정신학과 가정사역에 관한 엄예선과의 사적인 토론," 2005.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449-450에서 재인용.

리새인들에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마19:4-5)라고 되물으심으로 창조질서로 볼 때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혼을 없애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인 바(마19:6, 막10:9), 여기서 "짝지어 주신"(sunexen)이란 부정과거형으로서 한번 해서 영구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²⁶⁰⁾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예외조항을 덧붙임으로 절대금지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정신에 있어서 이런 예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실제생활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정신을 순종할 수 있게 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내려오는 것같이 아내가 남편이 원할 때 취했다가 싫으면 버릴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 더 이상 남편의 자의적인 폭력에 아내를 맡기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둘째,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정이 인간의 죄성에 양보한 것임을 확인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마19:7)라고 할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19:8)라고 하셨다. 이는 이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계발(啓發)되었던 인간적인 편의제도였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²⁶¹⁾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여건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임시적인 용인이지 영원한 규례로 제정한 것은 아님으로 보아야 한다.²⁶²⁾ 또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은 "명령"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아서 이것은 신적인 양보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본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창조질서에서의 결혼제도는 결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²⁶³⁾

셋째, 이혼 후에 재혼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260) 박수암, *성서주석 마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451.

261) Henry M. Booth,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1980), 447-8.

262) 알버트 반즈, *성경주석-마태복음*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0), 142.

263) 김영봉, *성서주석-마태복음(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68.

재혼하는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며(마19:9, 막10:11, 눅16:18), 또한 그의 이혼한 아내 역시 재혼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마5:32). 또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여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라고(막10:12),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는 간음하는 것이라(마5:32, 눅16:18)고 말했다.

넷째, "성적(性的) 부도덕"이라는 단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만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셨다.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은 이혼 절대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배우자의 음행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性的)으로 부정한 배우자들 두었던 결백한 사람이 이혼과 재혼을 할 때 "간음"으로 낙인찍히지 않게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여기서 "음행"(πορνεία - 포르네이아)이라는 말은 "매음"(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의 뜻으로 "육체적인 성적인 불륜"을 의미한다.²⁶⁴⁾ 예수께서 성적(性的)인 부도덕을 이혼이 허용되는 유일한 근거로 삼으신 것도 성경적으로 규정된 결혼의 기초인 "한 몸"원리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⁶⁵⁾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허용"된 것이지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결백한 쪽이 부정한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혼에 있어서 남녀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천명하셨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림"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사회에서는 이혼의 선언은 남자 편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며, 이는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천명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3. 바울의 가르침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7장 10-16절에 기록되어 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

264)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526.

265) Stott,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429.

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잘리거든 잘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위의 본문을 근거로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울은 예수의 명령임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은 불가함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10-11절에서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 명령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분부"임을 강조하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잘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9-12절, 마태복음 19장 6,9절, 마태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천명하는 것이 분명하다.²⁶⁶⁾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을 자주 인용하지 않고 소수의 구절만을 인용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래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다.²⁶⁷⁾ 그리스도인 간에 이혼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 가운데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한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혼금지 명령을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해서는 안 되며, 혹 이혼했을 경우에는 다시 화합하고 재결합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혼한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간음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막 10:11-12, 롬7:2-3).

둘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혼합결혼인 경우에는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원할 경우 이혼이 허용되고 있다. 바울은 혼합결혼의 지속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달려있음으로 비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266)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368.

267) 바레트, *국제성서주석-고린도전서*, 197.

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을 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신앙적(종교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들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속(聖俗)을 구별하는 모든 종교들은 부정 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 탄다(defilement by association/extension)는 원칙이 있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원칙을 뒤집어 부정한 자들이 예수님과 어울려 거룩하게 됨 (sanctification by association/extension)의 원칙을 가르치셨고 그 원칙에 의해 행동한 바 있었다.²⁶⁸⁾ 따라서 죄인들이 예수께 나와 죄의 용서함을 받기도 하고, 문둥병자들이 예수의 만점으로 깨끗함을 받기도 했다(막1:40-45등).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동을 신학적 근거로 삼고 혼합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들에게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본다.²⁶⁹⁾

그러나 이와 같은 혼합결혼일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주도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에는 믿는 자가 거절하지 말 것을 교훈한다. 왜냐하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5절).

셋째, 바울이 이혼금지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울은 예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이혼금지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심지어 혼합결혼의 상태에서도 그 가르침의 정신을 적용해서 이혼을 막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이혼금지 가르침을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⁰⁾ 타락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주 부딪치는 윤리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항상 선과 악을 선택하는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조건 선을 선택하면 되지만,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⁷¹⁾ 이혼이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작은 악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때는 작은 악에 해당되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이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로 받아

268)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129.

269) 김세운,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51.

270)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130.

271)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276.

들일 수밖에 없다.²⁷²⁾ 바울이 신앙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 혼합결혼이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경우에는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는 예수님의 이혼금지의 가르침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한 것이지 그것을 "문자적인 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²⁷³⁾

넷째, 바울은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바울은 이혼에 관한 권면에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또 어떤 여자에게"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바울이 이혼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언급함으로 결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에서도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272) 조경원, *성서주석-마태복음*, 252.

273)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132.

제 4 장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인 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는 자녀가 노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모공경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차례대로 논의하려고 한다.

제1절 구약의 가르침

구약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헌장(Magna Carta)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계명 가운데 부모공경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흔히 십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로 보고 있다. 또한 예수가 계명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40)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가르친바 있는데, 이들 근거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윤리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윤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모공경에 대한 계명이 인륜관계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공경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특히 게롬(Jerome)이 "제 5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의 초석이고 원인이고 종표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부모공경을 가르치는 제 5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는데²⁷⁴⁾ 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펠로(Philo)와 요세푸스(Josephus)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274) 김문제, *십계명과 십자가* (서울: 세종문화사, 1977), 196.

4세기까지의 교부들과 현재 동방교회와 개혁신교회는 십계명이 두 돌비에 각각 5개씩 구분되어 기록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견해에 동의하는 아더 핑크는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위치까지 군림하며, 성경에서 부모들 이웃과 동격인 것처럼 취급한 적이 결코 없고, 6계명이하의 각 계명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첫 다섯 계명에서 각각 발견되는 점 등을 들어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한 돌 판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른 돌 판에 새겨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십계명을 구분하는 견해를 갖는 것은 부모공경이 인류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공경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적어도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²⁷⁵⁾

특히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심은 부모(노인)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은 선상에서 가르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며,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병행구절인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기록함으로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했고, 이 계명이 부모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정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²⁷⁶⁾

또한 "공경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kabad)로서 기본어근이 "무겁다"란 의미이고, "존경할만한", "명성이 높은"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이 말의 명사형은 "간"(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 "간장(肝臟)"을 뜻한다.²⁷⁷⁾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장기(臟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간장(肝臟)처럼 부모를 가장 귀

275)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302.

276) 모리스 위, *십계명*, 엄현섭 역 (서울: 천콜디아사, 1982), 51.

277)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148.

중하게 해야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내적인 존경심과 분명히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이 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공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로서의 신분(parenthood)을 공경해야 한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출21:17),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신27:16),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잠19:26),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잠23:22),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 등으로 교훈한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와 병행 구절인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²⁷⁸⁾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例)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보여 진다.²⁷⁹⁾

부모공경의 방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우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신명기 21장 18-21절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책해도 듣지 아니할 경우에 그들 장로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몰로 그들 처 죽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불순종하는 불효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본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구약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아비인 엘리 제사장의 말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와 제사들 멸시했던 불량자 홉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아가 한날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가문을 포함한 이스라엘에 여호와와 영광이 떠나가는 비극이 임했고(삼상2:12-17, 4:11-22), 그 아비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비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을 꾀했던 압살롬이 비극적인

278)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레위기 19장 3절 모두들 "부모"로 번역했지만, The New King James Version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로, 이와 병행 구절인 레위기 19장 3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Every one of you shall revere his mother and his father)로 번역되어 있다.

279) 권성수, *청년과 신앙*, 67.

최후를 맞이했으며(삼하17:1-18:15), 홍수 후 포도주에 취해 하체들 드러낸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발설했던 함이 저주들 받은 사건(창9:25)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모들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던 이삭(창22:1-14)이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사실(룻1:1-4:22),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령한바 이것을 대대로 순종했던 레갑 족속들(렘35:1-14)은 부모(선조)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밖에 구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공경의 방법으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드림으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봉양을 하고(잠23: 25), 부모에 대해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며(잠31: 28), 요셉이 야곱의 말년에 그들 잘 봉양하고 섬긴 것 같이(창47:12)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들 채워줌 으로 물질적으로 봉양할 것 등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를 요약하면, 먼저 부모들 진정으로 존귀(尊貴)히 여겨 공경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고마움과 감사들 드리는 동시에 부모의 필요들 공급해서 봉양하는 것 등으로 보여 진다.

제2절 예수의 가르침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네 부모들 공경하라는 말씀을 적어도 두 번 인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다. 한번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십계명의 다른 계명과 함께 제 5계명을 인용하셨고(눅18:20), 다른 한번은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필요들 채우는 것과 관련시켜 인용하셨다(마15:1-9, 막7:5-13). 먼저 부자 청년과 나눈 대화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께서 몇 가지 계명들을 인용하시는 가운데 제 5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인륜관계에서 다른 계명들 보다 맨 먼저 나오는 제 5계명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즉,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들 공경하라는 것을 맨 나중에 인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칼빈은 "예수가 계명들의 순위에 면밀하

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공경에 관한 계명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바 있다.²⁸⁰⁾ 그러나 Maston은 예수께서 제 5계명을 순서들 초월해서 맨 마지막에 인용하고 있는 것을 흥미로운 사실로 보고 있다.²⁸¹⁾ 이는 Maston이 예수께서 이 계명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 5계명을 인용하신바 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유전(遺傳)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 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막7:5)라고 예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사실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막7:9)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막7:10)라고 제 5계명을 인용하신 것이다.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하면 그만이라면서 그들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신 것이다(막7:11-13).

이로 볼 때 예수께서 부모공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한다(눅2:51).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봉양할 것을 부탁하심을 보아서(요19:27) 그는 마지막까지 부모공경을 친히 실천하시면서 가르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제3절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딤후3:2)임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딤후5:4)고 교훈함으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들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도록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80) 칼빈, *성경주해-공관복음(2)*, 188.

281)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304.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고 했다. 여기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부모가 주 안에 있을 때만 순종하라거나, 부모가 그리스도인일 때만 순종하라거나, 부모다워야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주 안에서 옳은 것이고 주님께 의해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⁸²⁾

그리고 "순종하다" (ὁπακούω-휘파쿠오)라는 단어는, "~에 의해", "~아래에"를 의미하는 "휘포"(ὕπο)와, "듣다", "청취하다"를 의미하는 "아퀴오"(ἀκούω)의 합성어로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의 뜻을 지니며, 본 절에서는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²⁸³⁾ 특히 중세신학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순종은 본래적인 의(natural justice)로 불리어지던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²⁸⁴⁾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이다.²⁸⁵⁾ 그러므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나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옳다"(δίκαιος-디카이오스)는 말은 "지당하다" ""타당하다"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²⁸⁶⁾ 따라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의로운 계명임을 밝히면서 이것은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골3:20).

이어서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인정한다는 말로써²⁸⁷⁾ 부모를 사랑하고, 깊이 존중하고, 경의와 사례를 동반하며, 심려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울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한 후에 이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한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

282) 헨드릭슨, *성경주석-에베소서*, 신성종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9), 329.

283) 그랜드 종합주석, *고린도후서-빌레몬서(15)*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4), 707.

284) John R. W. Stott,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박상훈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6), 302.

285) 렌스키, *성경주석-갈라디아/에베소서*, 장병일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5), 557.

286)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419.

287) Stott,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303.

는데, 순종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공경은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도 순종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주지시키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첫째"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숫자적인 차례뿐만 아니라 "지위" 또는 "중요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 으뜸"으로도 해석되기도 하는바,²⁸⁸⁾ 그러므로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²⁸⁹⁾

특별히 본문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하게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효도에도 남녀(부모)가 동등(평등)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3:20)고 교훈한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일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과 조화되는 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²⁹⁰⁾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울이 가르치는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들 요약하면,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이 옳은 일이며, 이는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보상이 뒤따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88) 그랜드 종합주석, *고린도후서-빌레몬서(15)*, 707.

289) 헨드릭슨, *성서주석-에베소서*, 331.

290) 존 스타트,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307.

제 7 장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결혼을 한 부부는 자녀들 생산함과 동시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들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관계를 논함에 있어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1절 구약의 가르침

창조의 질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창1:27-28). 물론, 결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들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생산되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시편의 기록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것이 그 전통(箭筒)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시127:3,5)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업"이란 히브리어로 "나할라"(nachalah)인데, 이 말은 "소유", "몫", "유산(遺産)", "상속재산" "상속된 어떤 것" 등의 뜻이 있으며, 동사로는 "상속하다"의 뜻으로 쓰인다.²⁹¹⁾ 따라서 문자적인 자녀의 의미는 "자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재산", 혹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자녀교육에 대한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한다.

291)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218.

1. 사랑과 징계들 통한 자녀양육

Balswick 부부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은 한 가지 자녀양육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녀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부모의 사랑(지지)과 징계(통제)가 한데 엮여지는 그런 자녀양육 모델이다"고 제시한바 있다.²⁹²⁾ 따라서 사랑과 징계들 통한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관계들 설명하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보여진다.

구약성경에서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 사랑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명령을 했거나 언급한 구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는 부모가 자녀들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속하는 것으로 자녀사랑을 구태여 명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천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되기도 하는바, 자녀인 이스라엘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심은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좋은 모델로 보여진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슬퍼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부모의 자식사랑에 대한 좋은 모델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것에 대한 말씀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훈계들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들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12:1).
-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하느니라(잠13:24).
-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들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잠19:18)
-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들 욕되

²⁹²⁾ Balswick 부부, *크리스천 가정*, 133.

게 하느니라(잠29:15).

▪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잠29:17)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사랑과 동시에 징계로 훈육하여 자녀들이 임의로 행동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종류의 징계와 올바른 정신으로 하는 징계는 사랑의 산물이요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2. 교육을 통한 자녀양육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9절은 소위 셰마(Shema)라고 불리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유대교의 중심이기도 하다.²⁹³⁾ 셰마란 "듣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이며, 이 셰마(신:6 4-9절)는 신명기 11장 13-21절, 민수기 15장 37-41절과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어린이들이 말하기, 읽기를 배우는 성경의 첫 대목이 되어 왔다.²⁹⁴⁾ 이 셰마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몇 가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자녀교육의 원리들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자녀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며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 암시 한다. 신명기 6장 4-9절의 내용은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며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일단 부모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셰마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B.C. 500년경 회당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그리했으며, 회당이 세워진 후에도 회당과 랍비가 자녀교육에 대한 최적의 장소와 교사로서의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지 못했다. 단지 회당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보완과 강화의 기능을 했을 뿐이었다.²⁹⁵⁾ 이로 볼 때 구약시대의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 행위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왔다는 사실이며,²⁹⁶⁾ 특별히 자녀교육의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잠6:20). 따라서 구약시대의 가정은

293) N. T. 라이트,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473.

294) Maston,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293.

295) Ibid. 295.

296)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85.

가족들의 자연적인 유대(紐帶) 이상의 종교적 공동체였으며 종교교육의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장소였다.²⁹⁷⁾ 이는 오늘날 우리의 종교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자녀들의 종교교육이나 학교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교회나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고,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목사나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로서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신명기 6장의 처음 세 구절은 쉼마를 말씀하기 위한 서론 격으로, 2절을 보면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명령한다. 또한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진리들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자신들이 먼저 행함으로 모본을 보여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바울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롬2:21)고 말한바 있고, Balswick부부도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자녀양육에 대한 책을 던져 버리고 자녀에게 그저 단순히 참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²⁹⁸⁾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셋째, 자녀교육은 어려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7절에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공식적인 어떤 형식을 갖춘 교육도 중요하거니와 비형식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르치다"(하나크 :hanak)는 "어떤 것을 입 속에 넣다", "맛볼 것을 주다"는 의미다. 즉, 이 말은 "기초적인 교훈을 주다", " ~에게 감염시키다", "감화시키다", "불어넣다", "훈련시키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아이에게 그 길을 초보부터 가르치라"는 뜻을 담고 있다.²⁹⁹⁾ 그러므로 자녀교육은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

297) Lewis J. Sherrill,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NY: MacMillan Co.), 17.

298) Balswick 부부, *크리스천 가정*, 121.

히 기초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넷째, 종교적인 상징물들이(Symbols) 자녀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암시한다. 신명기 6장 8-9절을 보면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되어있다. 이는 자녀의 교육과 훈련의 도구로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것, 즉 시청각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정리하면, 부모는 사랑과 근심한 징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그들을 교육할 것,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될 것,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할 것, 종교적 상징물들을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 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절 예수의 가르침

예수는 결혼을 하신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낳은 적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다(마19:13-15). 또한 제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물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말씀하신바 있고(마18:1-5),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마18:10)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고 말씀하심으로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아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셨다. 예수의 이와 같은 태도와 가르침은 당시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patria potestas*) 즉, 부권(父權)과 비교할 때 과히 혁명적인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는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로 가족들을 노예로 팔수도 있었고, 사슬에 묶어 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녀들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³⁰⁰⁾ 또한 자녀를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부친의 밭밭에 놓았고, 그가 자녀를 주워 올리면

299) 풀겟주석-잠언(하), 풀겟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216.

300) 바클레이, 성서주석-갈라디아서/에베소서, 272.

부친이 그 자녀를 승인하여 그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것을 의미했다.³⁰¹⁾ 한결을 더 나아가 세네카는 "우리는 난폭한 암소들 죽이고, 미친개도 죽이며, 병든 가족이 다른 가족들에게 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칼로 찔러 죽인다. 것처럼 우리는 병약한 아이나, 불구의 몸을 가진 아이는 내다버린다"고 말했다.³⁰²⁾ 이와 같은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는 혁명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며 사랑할 것, 자녀를 인정할 것, 자녀를 업신여기지 말 것,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절 바울의 가르침

바울도 역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부모와 자녀관계를 말한바 있다. 바울이 말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구절은 에베소서 6장 4절, 곧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로 알려져 있다. 혹자는 여기서 "아버지야"라는 말을 근거로 아버지가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사인 아버지 몫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³⁰³⁾ 그 앞 절인 6장 1-3절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문제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6장 4절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 양육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⁰⁴⁾ 즉,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 병행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야, 너희 자녀들을 격노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병폐는 "낙심"이며, 낙심은 곧 끊임없이 퍼붓는 비난과 책망과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 때문에 오는 실망감으로,³⁰⁵⁾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

301) 바클레이, *성서주석-갈라디아서/에베소서*, 273.

302) Ibid. 274.

303)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21.

304) 권성수, *청년과 신앙*, 88.

305) 바클레이, *성서주석-갈라디아서/에베소서*, 275.

망이다"306)라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는 바, 이동원은 교양은 "예방"에 해당하고 양육은 "치유"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말한다.³⁰⁷⁾ 그가 자녀교육에 예방과 치유가 함께 필요함을 역설한 것은 좋은 관점으로 보여 진다. 특히 "양육하라"(ἐκτρέφω-엑트레포)는 장성하기까지 "키우다", "소중히 기르다", "훈련시키다"의 뜻이 있는 단어로, 여기서는 "훈련시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³⁰⁸⁾ 이근호는 "이 단어가 능동형, 명령형,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바, 능동형으로 쓰였다함은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자라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동시에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부모의 자녀교육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고 말한다.³⁰⁹⁾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소중히 기르고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울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정리하면,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시에 있고, 자녀들 노엽게 해서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예방과 치유의 교육이 중단되지 말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306)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박환덕 역 (서울: 범우사, 1993), 19.

307) 이동원, *가정행전* (서울: 규장, 1998), 167.

308) 조두만,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432.

309)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치출판 한글, 1999), 231-234.

제 8 장

결 론

제1절 요약

가정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최고(最古)의 기관이다. 모든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만큼 인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곳도 없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의 핵(核)과 같아서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나 국가가 되어가기 때문에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곳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친밀한 가족관계들 통한 인간의 행복추구, 경건한 자녀들 출산해서 올바르게 양육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에 있다.

제도로서의 가정과 교회는 목이 붙어서 태어난 삼(siamese) 쌍둥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연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딱정벌레와 개미와 같은 공생관계이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자각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농경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은 감정적이고 정이 많고, 가족주의에서 오는 강한 배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외래문화인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융합되면서 수직적인 사고의 경향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과 형식을 중요시해 왔다. 또한 오늘날 한국인들은 서구적이며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물질만능적인 태도, 성의식의 급격한 변화, 개인주의 내지 이기적인 행동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여기에서 오는 많은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특별히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가족제도에 있어서도 대가족제도가 빠른 기간 내에 붕괴되어 핵가족화 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족들 간에도 세대 간, 남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재현상이 짙게 나타남으로 많은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를 야기하였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 노인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며, 이는 곧 가정문제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오늘날 한국가정은 Sell이 지적한대로 마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당한 희생자와 같다. 따라서 마땅히 교회가 가정을 도와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가정을 도와 모든 가족들이 가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상처 입은 가정들을 치료해 가정을 회복시키며,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사역을 전개하는 등 가정을 돌보는 일에 모든 목회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교회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고속질주 하는 가운데 경이적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많은 가정들이 부흥의 불꽃에 데이기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기독교 가정사역기관들과 교회들이 증가일로에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가정사역이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대부분 가정사역 기관들과 교회들이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적 • 신학적인 기초가 부실하고, 신학적인 일괄성이 결여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기초 위에서 가정사역이 실시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부부중심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 자녀양육프로그램이나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적은 실정이었음을 발견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가정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가정사역을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 가정사역의 성경적 • 신학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자는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견고히 함과 동시에 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부부관계,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하고자, 건전한 주석들과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에 대한 논의는 창조질서, 타락질서, 그리고 새 창조질서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후, 결혼과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먼저, 창조질서에서의 부부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등(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같다.

둘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한 단계 낮은 보조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조력 내지 상호반응이라는 관점에서 평등관계요 상호 보완성의 관계이다.

셋째,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것 자체가 존재나 기능의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자원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대상자다.

다섯째,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근원" 혹은 "원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우월을 가리는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질서에서의 남녀관계는 위계질서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었으나, 이 말은 보다 강화되고 법 조문화 된 부부간의 위계질서들의 의미할 뿐 예속이나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질서로 개편되었고, 새 창조질서 안에서는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전혀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음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받음, 또한 그 은사들 통한 복음사역에 종사함에 남녀의 차별이 조금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옛 창조질서가 아니라 타락질서를 넘어 새 창조질서 속에서 남녀관계와 부부관계를 보아야 한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아래, 결혼식을 거행함으로 공식적으로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연합함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다.

이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아니다. 특히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인 죄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혼을 없애려 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아무 권리 없이 쉽게 내쫓김을 당하던 여성들을 위해서 예외조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이혼에 대한 모세의 규정이 인간의 죄성에 양보한 것임을 확인하셨으며, "성적(性的) 부도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만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셨고, 이혼에 있어서 남녀동등성과 상호주의를 천명하셨다.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는 이혼이 불가능하되,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 사이의 혼합결혼인 경우에는 비 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원할 경우 이혼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바울은 이혼금지들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울 역시 이혼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주의를 천명한다.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겨 공경하고, 순종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서 봉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수는 부모공경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고,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함으로 마지막까지 부모공경을 실천하며 가르치셨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옳은 일이며, 이는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 뒤 따름을 언급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은 사랑과 징계를 통해서 근실히 자녀를 양육하되, 자녀교육의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고, 일차적 자녀교육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교육에 임해야 하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의 상징물을 사용함도 교육효과 증진에 효과적임을 가르친다.

이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며 사랑할 것, 자녀들을 인정해 줄 것, 자녀들을 업신여기기 말 것, 자녀들을 축복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은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 것이며, 예방과 치유의 교육이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제2절 제언

필자는 한국교회에 가정사역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와 가정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목회철학과 목회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것을 제언한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부문제나 노인문제, 그리고 청소년문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문제를 속에서 봉괴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교인가정이라고 해서 이러한 가정문제에서 결코 자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문제가정이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으며, "힘 있고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만이 건강한 사회로 변화되도록 주도해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목회적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살찐 사람이 곧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음같이 외형적으로 비대한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교회성장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건강한 교회들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공생관계에 있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줌으로 건강한 교회들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교회와 가정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목회철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모든 신학교 교과과정에 가정사역에 관한 과목들을 개설할 것과 가정사역 분야에 대한 목회자 재교육 실시를 제언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사역 기관들과 가정사역을 실시하는 교회들에게서 신학적 기초의 부실과 신학적 일관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정사역

에 대한 지식과 경험부족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신학교 교과과정에 가정사역 분야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전선에 뛰어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범교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워크숍(workshop)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목회자들의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 기반의 부실과 신학적 일관성의 결여는 결국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건전한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을 가질 것을 제의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는 가정사역기관을 주도하는 기관들과 일선 목회자들의 신학적 기반부족과 신학적인 일관성 결여가 심각하며,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고스란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몫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교회는 여러 교파와 교단들이 있어 주장하는 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 할 때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가정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통일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로, 한국교회는 남녀관계와 결혼과 이혼,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교육, 물질문제, 직업에 대한 태도 등 가정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진의를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칠 것을 제언한다. 오늘날 불신세계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괴리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사회생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정생활에 직결되는 문제 하나하나를 성도들에게 명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도들이 가정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사회변화의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복음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성장의 한 방편으로 삼지 말고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언한다. 가정사역은 한 두 교회만 잘된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사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토대가 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모든 교회가 이 자료들

을 공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부부중심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 성인자녀와 노부모 문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문제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현상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국교회는 성인자녀와 노부모 문제와 부모와 자녀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집중적인 개발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자신의 가정을 가정사역의 모델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정사역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가정사역에 대한 모델로 제시할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가정사역을 주도하는 목회자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모델로 제시 될 때 가정사역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 내(內)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으로까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확산되어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국문서적

- 강병도, *성경연구 시리즈 창세기-출애굽기*, 서울: 기독지혜사, 1998.
- “결혼과 가정,” 가정사역학교 교재, 서울: 동산 가정상담실, 2007.
- 권용혁, *가족과 민주주의*,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권성수, *청년과 신앙*, 서울: 한국개혁신학 연구원, 1991.
- 그랜드 종합주석,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4.
- _____, *고린도후서-빌레몬서*,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4.
-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출판사, 1999.
- 김기숙, “기독교 가정교육,” *인문총론15*,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두란노, 1998.
- 김동배, “한국가정과 노인문제 그리고 교회의 역할,” *기독교사상*, 통권 제401호, 1992.
- 김문제, *십계명과 십자가*, 서울: 세종문화사, 1977.
- 김상복, *행복한 부부생활 가꾸기*, 서울: 나침판, 1997.
- 김상복, *잃어버린 왕좌*, 서울: 햇볕, 1995.
-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7.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6.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 김영환 외, *한국 청소년 문제 행동 종합대책 연구Ⅲ*,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5.
- 김영봉, *성서주석-마태복음(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증기, “행복한 결혼의 기초,” *기독교 사상*, 1982년 5월호.
- 김지철, *성경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창락, *성경주석 갈라디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1982.

- 남명희,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노연실,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1.
- 로고스, *원어분해성경*,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7.
- 박민선, "다양한 가족생활,"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8.
- 박수암, *성서주석 마가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박익수, *성서주석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박차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아버지역할 증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4.
- 백승현, "두란노 아버지학교 10년, 그 성과와 평가," *두란노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 "부산지역 노인들 '자녀와 살고 싶다,'" *중앙일보* 2001년 1월 10일, 사회면.
- 송길원, 김향숙, *송길원 부부의 꿈꾸는 스위트 홈*,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2004.
- 송길원, *가족사랑 길라잡이*, 서울: 도처출판 기가연, 2000.
- _____, *이제 행복을 말하자*, 서울: 도처출판 해피홈, 2007.
- _____, *브라보 스쿨*, 서울: 도서출판 해피 홈, 2007.
- 송성자, "한국 가족문제와 가족치료," *가족치료 총론*, 서울: 동인, 2000.
- 설은주, *가정 사역론*,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6.
- 신인현, *새 시대 새 물리, 현대청년 시리즈Ⅱ*,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1.
- 옥성호,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 _____, *고린도전서*,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 _____, *신명기*, 서울: 성서교재 주식회사, 1998.
-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엄예선, *한국교회와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엄예선, “건전한 기독교 가정,” 강의안;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2005.
- 이근호, *성서로 본 부부갈등과 가족문제 해결*, 서울: 도처출판 한글, 1999.
-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상)*, 서울: 문리사, 1977.
- _____, *속 한국인의 의식구조 (상)*, 서울: 신원문화사, 1983.
- _____, *한국인의 의식구조 (하)*, 서울: 문리사, 1977.
- _____, *서양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85.
- _____, *동양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1985.
- 이동원, *가정형전*, 서울: 규장, 1998.
- 이상근, *신약주해 마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7.
- 이상호, *창세기*, 서울: 동해출판사, 1999.
- 이성희, *밀레니엄목회리포트*, 서울: 규장, 1999.
- 이어령, *흙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범서출판사, 1982.
- 이영숙, *청소년기 가족문제*,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1994.
- 이천선, “부부의 권력구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들,”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 이희범, *부부행복학교*, 서울: 지구촌 가정훈련원, 2004.
- 장상태,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두란노 아버지학교 1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4.
- “젊은 노인’ 일자리 늘려야,” *중앙일보*, 2001년 10월 15일, 사회면.
- 조경철, *성서주석 - 마태복음(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두만 편역, *히브리.헬라어 한글 성경대사전*, 서울: 성지사, 1987.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교재*, 서울: 두란노 아버지학교, 2006.
-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두란노 어머니학교 교재*, 서울: 두란노 어머니학교, 2007.
- “주님! 제가 꿈을 이룬 아버지입니다,” *Father's Dream 교재*,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성훈련원 평신도훈련소, 2007.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안장로교회 가정사역국*, 2007.

- 지구촌 새가정 훈련학교 교재, 지구촌교회.
- 차준희, *창세기 다시보기*,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 _____, *구약성서의 신앙*,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97.
- 천사무엘, *성서주석 창세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 추부길, 김정희,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한국가정사역연구소, 2000.
- 추부길, *Family Ministry*, 서울: 한국가정사역 연구소, 2005.
- 최복림, "가족치료의 가치와 문화," *가족치료 총론*, 서울: 동인, 2000.
- 최순남, "우리나라 노인문제와 교회의 역할," *신학연구 제25집*, 서울: 한신 신학연구소, 1983.
- 최원기, "청소년 법적 비행의 경향과 원인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2001.
- 통계청, "우리나라 이혼율, 그렇게 높은가?"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 _____, "이혼 사유별 이혼,"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 _____, "인구동태 및 밀도,"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 _____, "행정구역별/연령/성별고령자," 2007년 12월 2일 인용, Online: <http://www.kosis.kr/>
- 통독성경,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4.
- "한국,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된다," *연합뉴스*, 2007년 7월 10일.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1982.
- 함인희,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8.
-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세미나 교재," 서울: 순복음 영성훈련원, 2007.
-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1)*, 서울: 도서출판 셰마, 2006.
- _____,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2)*, 서울: 도서출판 셰마, 1996.
- _____,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3)*, 서울: 도서출판 셰마, 1996.

2 번역서

- Balswick, Jack O. & Juidth 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 _____, *건강한 성*, 황병룡 역, 서울: IVP, 2002.
- Barnes, Albert, *성경석-마태복음*,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0.
- Barrett, C. K. *국제 성서주석 고린도전서*, 한국 신학연구소 번역실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2006.
- Bovet, Theodor, *부부학개론*, 임석진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Brunner, Emil, *정의 사회질서*, 전택부 역, 서울: 평민사, 1984.
- Calvin, John, *성경주해 공관복음1*, 칼빈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0.
- Calvin, John, *성경주해-공관복음(2)*, 칼빈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0.
- _____, *성경주석-창세기*, 칼빈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90.
- Collins, Gary R. *파워리더*, 최애자 역, 서울: 프리셉트, 2001.
- Evans, Mary J. *성경적 여성관*,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2.
- Foster, Henry J. *베이커주석 고린도전서*, 장지철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7.
- Henry, Matthew, *창세기 주석*,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 Hess, Margaret, *더 즐겁게 사는 부부*, 최수경 역, 서울: 나침반사, 1993.
- Hitner, Seward, *목회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8.
- Huggett, Joyce, *결혼과 사랑의 미학*, IVP편집부 역, 서울: IVP, 1993.
- Jeremias, Joachim,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Kassian, Mary, *여자, 창조, 그리고 타락*, 이정선 역, 서울: 도처출판 바울, 1992.
- Keener, Craig S. *바울과 여성*, 이은순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 Kierkegaard, S. A. *죽음에 이르는 병*, 박환덕 역, 서울: 범우사, 1993.
- Leupold, H.C. *반크주석 창세기*, 최종태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2.
- Maston, T.B. *성서 그리고 현대가정*,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Rainey, Dennis, *내 곁에 있는 당신*, 금병달, 김정진 역, 서울: 순출판사, 1999.

- Sara, Harold J. *한 몸이 될지니라*. 오진관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Sell, Charles M. *가정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 Sneddes, Lewis B. *크리스찬의 성*. 안교신 역. 서울: 두란노, 1976.
- Storkey, Alan. *결혼과 가족*. 황영철 역. 서울: 서울서적, 1985.
- Stott, John R. W. *결혼과 이혼*. 김원주 역. 서울: 두란노, 1991.
- _____.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2005.
- Stott, John R. W.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박상훈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6.
- Toffler, Alvin. *제삼의 물결*. 박문호 역. 서울: 대명사, 1984.
- Trobisch, Walter.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양은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 Wee, Morris. *십계명*. 엄현섭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Williams, John. *결혼과 가정생활*. 김영배 역. 서울: 신망애, 1988.
- Wright, N. T.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렌스키 주석. *고린도전서*. 문창수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82.
- _____. *성경주석-갈라디아/에베소서*. 장병일 역. 서울: 백합출판사, 1975.
- 아라이사사구. *신약성서의 여성관*. 김윤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아끼교, 미나토. *여성의 진정한 자기확립*. 김혜강 역. 서울: 엘맨 출판사, 1992.
- 폴핏 주석. *창세기(상)*. 폴핏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 _____. *잠언(하)*. 폴핏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보문출판사, 1980.
- 핸드릭슨 주석. *성경주석 누가복음 (중)*.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8.
- _____. *성경주석-에베소서*. 김유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9.

3. 영문서적

- Anderson, Ray S. & Guernsey, Dennis B. *On Being Famil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5.
- Booth, Henry M. *The Preacher's Complete Homiletic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1980.
- Brunner, Emil. *The Divine Imperative*. London: Lutter worth press, 1937.
- Clapp, Rodney. *Families at the Crossroad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3.

Jewett, Paul K. *Man as Male and Female*, Grand Rapids: Williams B. Eerdmans
Publ. Co., 1975.

Lynn, Robert. *Protestant Strategies in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1964

Sherrill, Lewis J.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Co.

Vita of
Seung Yong Um

Present Position:

Mission Pastor of Hanbit Methodist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November 13, 1955,
Birthplace: 431 Wonbookri, Sungdongmyun, Nonsangun,
Chungnam,
Marital Status: Married to Jeongsuk Kim with two children,
Home Address: 63 Glacier Dr. Berlin. NJ 08009.
Denomination: Jesus Korea Sungkyul Church
Ordained: March 10, 1980,

Education:

B. A. Sungkyul University, Korea, 1978,
M. Div. Sungkyul University, Korea, 1981,
M. P. A. Dongguk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1982,
Th. M.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Korea,
198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8

Personal Experience:

2004 to 2008 Senior Pastor of New Jersey Evangelical
Church, New Jersey
1980 to 2004 Korea Army Chaplain